

공무국외연수보고서

2006년도 공공도서관협의회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 네덜란드 · 독일 · 체코 -

2006. 6

차 례

1. 연수 개요	1
2. 연수대상 도서관	4
3. 연수단 명단	5
4. 연수결과 보고서	6
○ 로테르담도서관	9
○ 프로란드공공도서관	16
○ 독일프랑크푸르트국립도서관	24
○ 구텐베르그박물관도서관	34
○ 체코국립도서관	48
○ 프라하시립도서관	58

1. 연수 개요

○ 연수목적

- 유럽 선진 도서관의 문헌정보 서비스, 도서관 운영현황 및 도서관협력 사업 등에 대한 현장연수를 통하여 관련 정보습득 및 전문성 제고
- 일선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관련자료 수집을 통한 도서관 정책현장에 반영

○ 연수지역

- 네덜란드(암스텔담),
- 독일(켈른, 하이델베르그, 프랑크푸르트),
- 체코(체스키크룸로프, 프라하)

○ 연수대상 인원

- 23명(공공도서관 21명, 국립중앙도서관 2명)

○ 연수 기간

- 2006. 5. 3(수) ~ 5.12(금) [9박 10일]

○ 연수 내용

-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및 도서관 운영 시스템
- 각국 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운영현황
- 지역별, 도서관별 도서관 협력 사업(상호대차 등)
- 도서관 시설현황 파악 및 기타 문화시설 견학

2. 연수대상 도서관

나라	도서관명	주소
네덜란드	프로란드 공공도서관 Bibliotheek floriande Bibliotheek nieuw-vennep	ADD : Baron de coubertinlaan 4, 1234 cg hoofddorp
	로테르담 도서관 Bibliotheek Rotterdam centra	http://www.bibliotheek.rotterdam.nl/ ADD : Schoolstraat 2, 2151 aa nieuw-vennep
독일	구텐베르크박물관 도서관 GUTENBERG MUSEUM LIBRARY	www.gutenberg-bibliothek.de www.gutenberg-museum.de ADD : Liebfrauenplatz 5 55116 Mainz Tel : 06131-122623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도서관 Die Deutsche Bibliothek Frankfurt Am Main	www.ddb.de ADD : Adickesallee 1 60322 Frankfurt am Main Germany Tel : + 49-69-1525-0
체코	체코국립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The Czech Republic	www.nkp.cz ADD : Klementinum 190 110 00 praha 1 Tel : +420+221+663+212
	프라하시립도서관 Prague City Librar	www.mlp.cz ADD : 149 0 0 Prague 4 Tel : +420+23600+1111

3. 연수단 명단

번호	지역	소속	직급	성명	비고
1	국립	국립중앙도서관	행정5급	김수한	단장
2			사서6급	신명숙	총무
3	서울	정독도서관	사서7급	강인숙	
4		종로도서관	사서6급	김미정	
5	부산	북구디지털도서관	사서6급	한건일	
6		시민도서관	사서6급	김화숙	
7	대구	효목도서관	사서6급	천옥진	
8	인천	북구도서관	사서6급	박경애	
9	광주	중앙도서관	사서7급	정의현	
10	대전	안산도서관	사서6급	김윤성	
11	울산	남부도서관	사서6급	임미희	
12	경기	석수도서관	사서6급	유옥환	
13		화도도서관	사서7급	이은주	
14	강원	삼척평생교육정보관	사서6급	조유진	
15		철원도서관	사서6급	나중선	
16	충북	청주기적의도서관	일반	서일민	
17	충남	서산시립도서관	사서7급	탁순기	
18	전북	전주시립도서관	사서7급	윤기연	
19	전남	목포공공도서관	사서8급	박향미	
20	경북	포항시립도서관	사서6급	이상희	
21	경남	진동도서관	사서6급	이해숙	
22	제주	탐라도서관	사서7급	김철용	
23		한경면도서관	사서8급	오경훈	

4. 연수결과 보고서

네 델 란 드

- ▶ 네델란드 개관
- ▶ 로테르담 도서관
- ▶ 프로란드 공공도서관

』 네덜란드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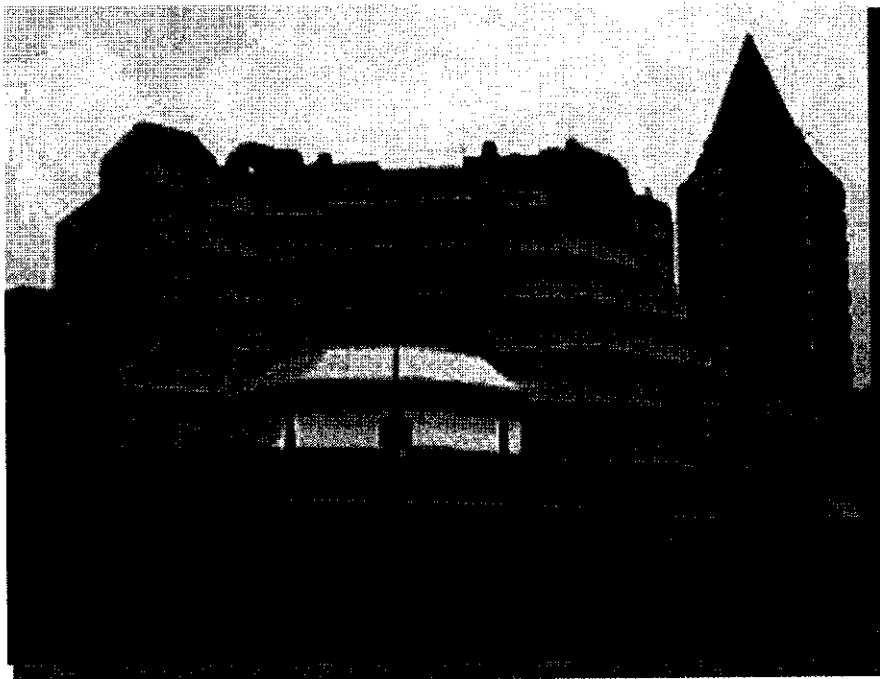
신이 세상을 창조했으나 네덜란드인에 의해 만들어졌다

가혹한 환경과 싸워서 지금에 이른 네덜란드는 그 땅을 밟는 것 만 으로 큰 감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653년 선원 하멜이 조선에 표류하고 1666년에 하멜 표류기를 발표하여 서양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존재를 알린 것이 바로 네덜란드와 우리의 관계의 시작이다. 또한 이준 열사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국한 나라이며 역사적으로 인연이 깊은 나라이기도 한다.

최근 히딩크 감독의 고향으로 더욱 우리에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나라가 되었으며 영국간의 유대가 강화되었다. 작지만 국민소득 2만5천불을 상회하는 유럽사회에 있어서 당차고 알뜰한 선진복지국가가 바로 네덜란드이다.

- 수 도 : 암스텔담(Amsterdam)
- 인 구 : 약 1,600만명
- 면 적 : 41,548km²(내해수면 제외시 37,305km², 한반도의 1/5)
- 주요도시 : 헤이그(덴-학. Den-Haag), 로텔담(Rotterdam), 유티레히트(Utrecht)
- 주요민족 : 화란민족(게르만족의 1개 분파)
- 주요언어 : 화란어 (영어, 불어, 독일어 통용)
- 종교 : 카톨릭(32%), 네덜란드 개신교(17%), 비종파(38%)
- 정치형태 : 정치형태는 내각 책임제의 입헌군주국으로 15인의 각료로 구성되어있다. 주요 산업은 서비스 산업, 금융, 전기, 선박이며 주요 교역국은 독일, 벨기에, 프랑스 등이다.
- 지 리 : 유럽의 북서쪽에 지루하고 있는 네덜란드 벨기에와 독일 사이에 있다. 전 국토의 25%가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지역으로는 저지대가 계속이어 진다.
- 기 후 :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비교적 포근한 서안해양성 기후를 나타낸다. 연평균 강수량은 700mm 정도로 여름과 가을에 비가 많은 편이며, 안개가 많고 강한 서풍이 일년 내내 불어온다.
- 사회문화 : 전체 인구중 95%가 네덜란드인 이다. 인구의 60%가 크리스찬이며, 이슬람교도는 3%이다. 자원이 부족하고 국토의 25%가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지형적 어려움으로 근면성과 실리성을 겸비한 국민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 렘브란트, 반 아이크, 고흐 등의 대 화가를 배출해냈으며, 공예방면에도 재능을 발휘하고 있다.

┌ 네덜란드 로테르담도서관
Bibliotheek Rotterdam Centrale



<http://www.bibliotheek.rotterdam.nl/>

강인숙(서울정독도서관)

김미정(서울종로도서관)

박경애(인천복구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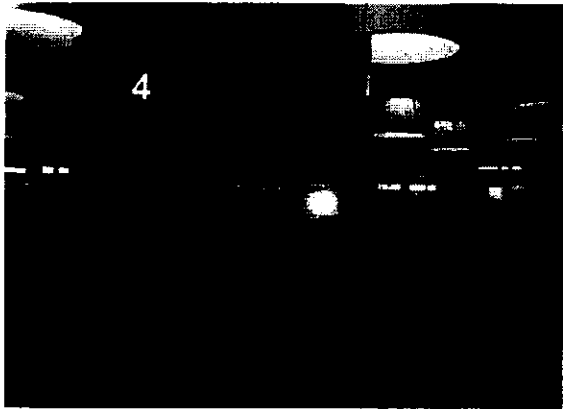
1. 일반 현황

가. Rotterdam시 공공도서관 현황

- Rotterdam은 암스테르담에 이어 두 번째 큰 도시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로서 인구 588,718명 중 약 50%가 외국인으로 이루어져 있음
- Rotterdam에는 Bibliotheek Rotterdam centrale(중앙도서관)과 23개 Branch(분관)가 있음

나. 시설 현황

- 연면적은 24,000㎡로 도서관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12,000㎡이고 그 외 부대시설인 극장, 디스코텍, 카페-레스토랑 등이 있음
- 건물 내부는 0층에서 6층으로 0층에는 극장, 카페-레스토랑, 디스코텍 등이 있어 시민들의 복합문화공간 및 만남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음
- 1층에서 5층까지는 어린이실을 포함한 주제별 자료실이 있으며 각 층에는 중앙 에스컬레이터로 연결되는 개방형 건물구조로 되어 있음
- 6층에는 Study room, Special Room이 있어 개인공부를 하거나 각종 소모임을 위한 방 및 완벽한 방음장치를 갖춘 개인 피아노 연습실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곳에는 실내 정숙을 필요로 하여 유일하게 출입구에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음.
- 층별 자료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였으며 층별 바닥 색을 각각 달리하여 한눈에 쉽게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



(총별 안내도 사인물)



(이동식 서가 배치)

- 자료실에는 이동식 4단 서가를 배치하여 공간을 다용도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음 (국가비상시 병원으로 활용가능)

다. 예산 현황

- 운영주체는 시정부 산하로서 예산의 50%는 자체 수입(도서관 이용 연회비, 예약금, 디스코텍, 카페-레스토랑 등 임대수입 등)과 50%의 시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 예산은 연간 300억 정도임

라. 자료 현황

- 도서 : 약 1,300,000권
- 신문 : 약 100종
- 간행물 : 1,500종
- CD : 약 300,000점
- 음악DVD : 5,000점
- LP : 300,000점
- 유럽에서 가장 많은 음악 관련 비도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

마. 이용 현황

- 자료 대출회원수 : 110,500명(2005년 말 현재)
- 연간 이용자수 : 2,768,926명 (2005년)
- 자료 대출권수 : 4,855,125권 (2005년)
- 웹 사이트 이용자수 : 290,000명
- 참고상담 (질문에 대한 답변건수) : 763,417건

바. 이용 시간

*하절기에는 휴가 등으로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수가 줄고 동절기에는 이용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동절기에는 일요일에도 도서관을 개관하고 있음

* 개관시간(주당) : 하절기(54시간), 동절기(58시간)

요일	시간	기간
월요일	13:00-20:00	
화요일	10:00-20:00	
수요일	10:00-20:00	
목요일	10:00-20:00	
금요일	10:00-20:00	
토요일	10:00-17:00	
일요일	13:00-17:00	9월~3월

사. 도서 대출

- 바코드 시스템으로 대출 반납처리하고 있음
- 자료대출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 당 연간 약 3,6000원의 회비를 내고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 자료는 도서, 비도서 등 전 자료에 대해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단, 잡지, 마이크로피쉬 자료, 참고도서, 고대 가치 있는 자료 제외)

2. 도서관 운영의 기본방향 (trend)

- 가. 지식의 창고로서의 도서관
- 나. 문화교류의 장으로서의 도서관
- 다. 시민들의 안전한 장소로서의 도서관

3. 장서관리

자료실에 비치된 자료는 발행연도가 최근부터 10~15년전 발행된 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그 이전자료는 시민에게 저렴하게 판매되어 별도의 도서관 서고는 없으며 고서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도서 300여 권만이 현 도서관의 전신인 300m 떨어진 교회건물에 보존되어 있음.

4. 자료실 운영

가. 1층~5층까지 개방형 내부 구조로 되어 있고 자료 배치는 주제별로 배열되어 있으며 자료실 내에 어린이 전용 코너를 운영하고 있고 층별 검색대와 ①(인포메이션)코너에서 사서가 참고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어린이 전용 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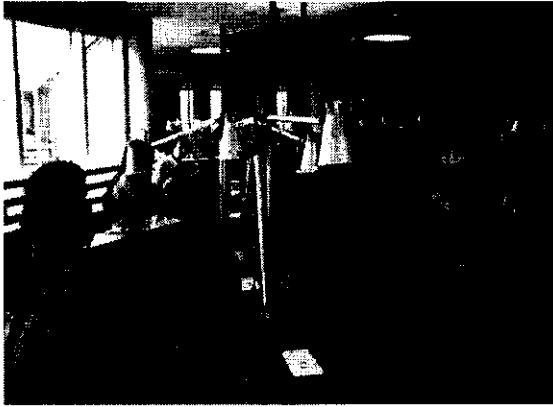


(검색 코너)

- 나. 특화된 자료수집으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 음악 관련 비도서류 보유하고 있고 직접 헤드폰으로 들어 볼 수 있는 음향시설을 자료실 내에 갖추고 있음
- 다. 시 인구의 50%가 외국인이어서 국내도서 이외에 20-25개국 언어의 자료를 수집하여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라. 영상 및 음악관련 자료실 한 코너에 영상장비 시설을 갖추고 오페라, 영화 등을 상영할 수 있는 오픈된 공간 운영하고 있음(테마를 정하여 그와 관련한 영상물 보여줌)

5. Study Room 및 Special Room 운영

- 가. 6층에 위치한 스터디룸은 개인 공부를 하는 이용자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방으로서 54대 컴퓨터와 100여석의 좌석이 있으며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음
- 나. 스터디룸 한 코너에 방음시설을 갖춘 Special room이 있으며 이 방의 용도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소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장소로 이용되거나 개인피아노 연습실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사용 가능함



(Study room)



(Special room)

6. 교육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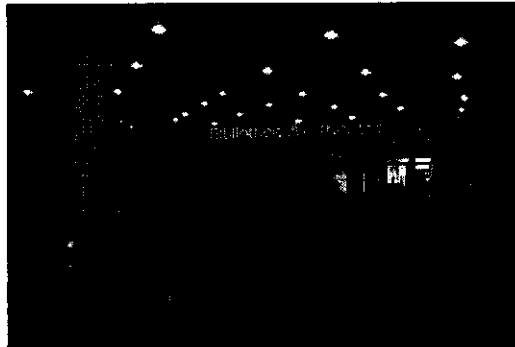
인구의 50%는 외국인으로 네덜란드어를 모르는 외국인을 위한 언어교육 프로그램 강좌를 운영하고 있음.

7. 도서관 극장 (Bibliotheek theater)

도서관 극장 좌석은 179석으로 단순히 영화상영 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나, 심포지엄, 토론회, 프리젠테이션, 리셉션 또는 이벤트 연주회, 파티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문화체험 공간 및 만남의 장소로 제공되고 있음.

8. 방문 후기

가. 네덜란드 도서관에서의 느낌은 Rotterdam도서관 뿐 아니라 Floriande 도서관 역시 모든 집기 비품들이 인체공학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설계되고 설치되지 않았나 하는 점이였다. 서가나 조명 책상들의 색감과 배치 또한 예술적인 품격이 느껴질 정도로 아름답고 실용적이었고 이용자를 고려한 가구 배치, 책상의 높낮이, 조명기구의 디자인, 서가의 배치와 높이 등이 인상적이였다.



나. 굳이 도서관만의 기능을 고집하지

않고 연극, 파티 등의 다목적 공간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이하며 이용자들을 도서관으로 유인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였다.

비좁은 공간에 서가를 설치할 장소도 부족한 우리나라와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다. 6층으로 갈수록 조용하며 다른 유럽국가와 달리 Study room과 Special room이 있어 피아노를 혼자 연습할 수 있는 개인공간이나 스터디룸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방음시설이 완벽한 점이 돋보였다.

라. 모두 낮은 4단으로 배치되어 시야가 트여 넓어 보이며 특히 바퀴가 달려있어 서가 이동이 편리하였다. (국가비상시 병원으로도 활용가능)

마. 평소 일요일에는 개관하지 않지만 겨울에는 이용자들을 위해 일요일을 개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바. 우리나라처럼 좁은 공간으로 인한 도서보존방안에 애로점이 없으며 오래된 도서는 이용자에게 저렴하게 판매해 운영예산에 활용하고 있는 점은 합리적으로 보였다.(일거양득의 효과⇒예산 및 공간 활용)

사. 여러 도서관 중에서 로테르담도서관은 운영면이나 지향점이 우리나라의 도서관과 가장 흡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문화적 교류를 위한 만남의 창구로서의 역할,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 고객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은 현재 우리 도서관들이 당면하고 있으며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도서관 구석구석에서 엿볼 수 있었으며, 시설임대(극장, 레스토랑, 디스코텍 등)나 스터디룸 설치 등은 우리도 한 번쯤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Rotterdam도서관과 Floriande도서관의 성격이 다른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Floriande도서관이 미래의 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모델이라는 말에서 '진정한 의미의 도서관이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했다.

프로랜드공공도서관



이해숙(경남진동도서관)
김철용(제주탐라도서관)
윤기연(전북전주도서관)

1. 일반현황

가. 도서관 소개

- 네델란드 할렘미어시에서는 인구 13만명을 대상으로 총 5개의 공공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음.
- 5개의 도서관 중 하나인 프로란드 공공도서관은 인구 4만명의 도시에 도서관이 먼저 건립된 후 신도시가 형성되었으며 개관 2년 된 도서관임.

나. 주소

Baron de coubertinlaan 4, 1234 cg hoofddorp

다. 이용시간

월요일과 화요일	12 ~ 18시	수요일	10 ~ 18시
목요일	휴관일	금요일	12 ~ 20시
토요일	10 ~ 14시	일요일	휴관일

※ 5개의 도서관 휴관일 서로 다름

라. 직원현황

- 5개 도서관의 직원수는 총 80명으로 1개의 중앙도서관에 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각 분관의 5개 도서관에서는 10명씩의 직원이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음.
- 지역주민들이 한 눈에 직원들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파란색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음.

마. 예산

- 5개의 도서관에 500만 유로 정부 지원을 받음
- 시에서 80% 예산 지원
- 자체 수입 20% (회원 가입비)

바. 주요기능

- 정보 질문 시 즉시 답변 - 5개의 어느 도서관에서도 답변 가능
- 도서관 웹 사이트로 어디서나 어느 도서관 직원들이 답변 가능 (24시간 이내 답변)

2. 운영 현황

가. 자료현황

- 장서수 : 5개 도서관 총25만권 (도서, 비도서 포함) / 5개 도서관이 서로 돌려서 이용함
- 8년이 경과된 장서는 귀중본을 제외하고는 지역주민들에게 판매하고 있음



자료실과 신간 안내대

나. 회원가입

- 5개의 도서관의 지역주민 13만 명 중 4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 일반회원 50% (유료 1년 약 30유로 정도)
- 어린이회원 50%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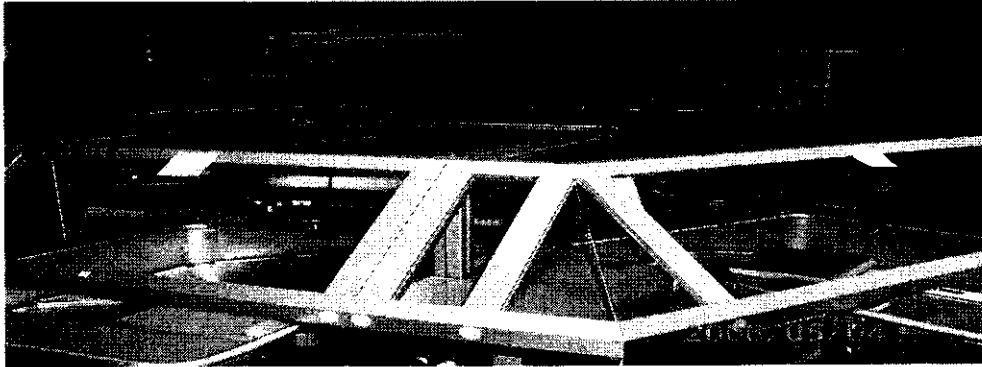


비도서 자료실

다. 대출

- 대출권수 : 1인 5권 대출
- 대출기간 : 3주 (연체 시 컴퓨터로 연장 가능 : 연체료 10펜스)
- 비도서 자료 대출 : 비디오 테이프, DVD, CD ~ 1주일 1유로

- 시 단위별 도서회원증으로 통합 대출 반납 가능
- 자동반납기 사용
- RFID 사용



자동반납기

라. 1일 이용자 현황

- 5개 도서관 이용자 수 ~ 1일 1500명
- 프로란드 도서관 이용자 ~ 1일 200명

마. 자료구입

- 중앙도서관에서 도서를 일괄 구입하여 5개 도서관에 배부함.
- 각 도서관에 도서목록을 받아서 참고로 함.

바. 문화활동

- 이웃 초등학교와 독서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음
- 학교단체 방문이 많음
- 근교 지역 주민들의 정보 교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
- 책뿐만 아니라 문화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음



유아실 내부

3. 결론 및 연수 소감

- 가. 방문 첫 번째 날인 목요일 네델란드 프로란드 도서관에는 휴관일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직원들이 출근하여 반갑게 우리 연수팀들을 맞이해 주었으며 신도시가 한참 건립 중이라 도서관 주변의 분위기는 조용하였음.
- 나.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도시형성이 다 되고 난 뒤에 도서관이 건립되는 상황인데 비해 프로란드 도서관은 신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건립된 도서관으로 이상적인 도서관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임.
- 다. 전체적으로 자연 채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외부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층마다 가로막힌 벽이 없이 탁 트인 공간들로 매우 시원스럽고 편리하게 보였음.
- 라. 이용자와 직원들 모두를 위한 최신 시설을 갖추고 최소의 인원으로 이용자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하고 있었음.
- 마. 도서관 내부 집기는 디자인과 실용성이 뛰어나서 마치 카페에 온 듯하며 자연 채광이 뛰어나며도 불구하고 조명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 바. 자유열람실이 없고 이용시간이 요일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불만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점이 무척 부러웠으며 이용자를 위한 접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도서관 운영 시스템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았음.

독 일

- ┌ 독일 개관
- ┌ 독일 국립도서관
- ┌ 독일 구텐베르크박물관도서관

』 독일 개관

중세고성과 맥주의 나라, 유럽의 경제중심, 독일

중세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로맨틱가도와 경제발전의 모델인 라인강의 기적. 다양한 맥주와 게르만 민족의 나라. 더불어 동·서독간 통합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평화통일 과정에 소중한 교훈을 주는 나라.

■ 수 도 : 베를린(Berlin. 약 350만명)

■ 인 구 : 약 8천200만명

■ 면 적 : 356,885km² (한반도의 1.6배)

■ 주요도시 :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뮌헨

■ 주요민족 : 게르만족 (99%)

■ 주요언어 : 독일어

■ 종교 : 신교(36.4%), 구교(34.6%), 기타(29%)

■ 지 리 : 남북으로 876km² 동서로 640km²에 걸쳐 있다. 지역적으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3개의 지역으로 나뉘어 졌다. 북부지역은 북해와 발트 해에 접하고 있으며 해발 1,000m 정도의 고원으로 삼림이 풍부한 구릉지대로 유명한 흑림 등의 대규모 산림군이 펼쳐지는 지역이다.

남부지역 또한 높은 산악지대로 알프스 기슭을 따라서 펼쳐진 고원지대로 보덴 호 등 수려한 경관의 호수들이 산재해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전체 지형은 남쪽의 알프스에서 북쪽의 북해로 경사져 있기 때문에 라인강 등 주요 하천이 북쪽으로 흐르는 특징을 보여준다.

■ 기 후

북서지역은 해양성기후, 남동부는 대륙성기후를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겨울은 한랭하며, 여름은 온화하나 번덕스러운 날씨를 보인다. 봄은 대체로 늦게 오므로 여름이 짧은 편이다. 12월부터 3월까지의 겨울은 라인강이 얼 정도로 추위가 혹독하다. 청명한 날씨는 해안지역은 4~5월, 내륙지역은 6~9월에 볼 수 있다.

6월까지의 샤프트케르테라 불리우는 추운 날이 종종 급습하며, 연중 갑자기 비 오는 날이 많다. 여름에는 가장 더운 달의 북부의 경우 17~18℃, 남부는 25℃로 서늘한 편이다.

■ 행정구역

독일은 16개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이다. 이들 주는 연방헌법에 의거해 있다. 의회와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주의 국가적 업무는 연방과 더불어 적절히 나누어져 있는데, 학교제도, 문화, 대중매체 등의 영역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분야는 주의 결정권이 우선적이지만, 자연 및 환경보호와 같은 영역에서는 연방이 법적 집행에 우선권을 갖는다.

■ 사회문화

독일어가 공용어이나 대부분의 관광지에서는 영어도 통용된다. 그러나 지방의 소도시에서는 영어 사용이 일반화 되어 있지 않다.

독일은 문학적으로 풍부한 생활권으로 다양한 작가와 철학자들을 배출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괴테와 셸러, 토마스 만과 헤르만 헤서 등의 작가와 하이네, 릴케 등의 시인이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와 함께 전 세계 클래식 음악가의 태반을 배출시킨 음악의 나라로, 바흐와 헨델, 하이든, 모차르트, 슈베르트, 슈만, 바그너, 베토벤 등 세계 거장의 음악가가 모두 독일에서 나왔다.

또한, 드라마 작가인 브레히트와 패션 디자이너인 요프, 독일이 전설인 나벨룬켄과 영화감독 빔 벤더스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시험적으로 자연환경을 개척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건축물, 언어, 기념물, 음악, 시각적인 예술분야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 독일 프랑크푸르트국립도서관
DIE DEUTSCHE BIBLIOTHEK FRANKFURT AM MAIN



www.ddb.de

천옥진 (대구 효목도서관)
한건일 (부산 북구디지털도서관)
임미희 (울산 남부도서관)

1. 일반 현황

가. 독일 국립 도서관 연혁

- 구텐베르크에 의해 발명된 인쇄기술의 영향으로 15세기 도서관발달에 영향
- 16세기 지방영주들이 화려한 도서관 건립시작
 - 1530년 프러시아 알브레이트공 쾨니히스베르크에 공공도서관과 사립도서관 설립
 - 아우구스트대제 드레스덴 도서관 설립
 - 비엔나 왕실도서관 설립
- 1848년 독일 출판사협회가 처음으로 국립도서관 건립 언급
- 1912년 BÖRSENVEREIN DER DEUTSCHEN BUCHHÄNDLER (독일 서적상,출판사협회)가 DEUTSCHE BÜCHEREI (라이프찌히관 : 구동독도서관)을 설립 독일 전역의 자료수집 시작
- 1947년 2차 세계대전이후 국토가 동서로 분단되면서 서독인들이 라이프찌히관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DEUTSCHE BIBLIOTHEK (프랑크푸르트관:구서독도서관)을 설립
- 1990년 10월 독일이 통일되면서 라이프찌히관, 프랑크푸르트관과 베를린 음악도서관(DEUSCHE MUSIKARCHIV BERLIN)을 합하여 DIE DEUTSCHE BIBLIOTHE(독일국립도서관)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통합
- 1992년 19,000㎡ 규모의 신관 건물 착공
- 1997년 2월 신관 개관

나. 소재지

- 주소 : Deutsche Biobliothek Frankfurt am Main
Adickesallee 1 60322 Frankfurt am Main deutschland
- Tel : +49-69-15 25-0, Telefax : +49-69-15 25-10 10
- E-Mail : info@dbf.ddb.de

다. 주요기능

- 국가 문헌정보센터로서의 역할 수행
- 국내·외 모든 독일어 출판물 납본
- 각종 국가서지 발간 및 ISSN센터 운영

라. 소장 자료 및 직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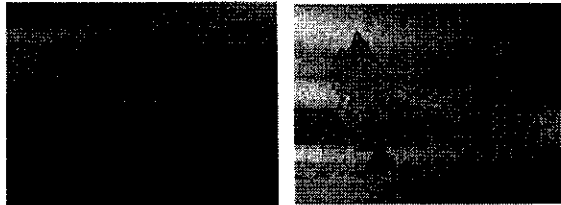
- 직원 : 400명(75%여성), 80%가 사서직
- 자료 : 총장서수 900만 권(프랑크푸르트관)으로 독일어 장서 위주 소장
 - 국립도서관
 - 프랑크푸르트관 : 900만 권의 전문서적 위주, 라이프찌히관과 활발한 상호대차 운영
 - 라이프찌히관 : 1,300만권의 문학서적 위주 소장
 - 베를린관(DEUSCHE MUSIKARCHIV BERLIN) : 음악, 예술에 관한 서적 위주 소장
 - 베를린도서관(STAATSBIBLIOTHEK ZU BERLIN)과 바이에른도서관(BAYERISCHE STAATSBIBLIOTHEK IN MÜNCHEN)이 독일의 장서와 해외장서를 갖춘 일반 학술도서관으로 국립도서관 보조

마. 시설 규모

- 건축비 : 1,200억 정도(1억 5천만 유로 상당)
- 구조 : 콘크리트구조 지하 3층, 지상 3층



(건물 모형도)



(각 층별 평면도)

○ 조형예술품 설치

- 독일에서는 건축 시 조형물 설치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곳곳에 조형 창작물 설치



(입구에 설치된 창작 조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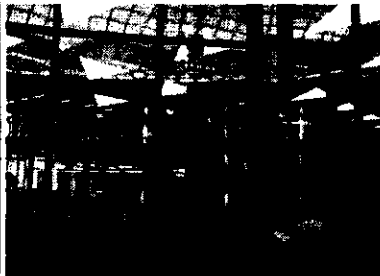


(바젤리트의 조형물 앞에서 한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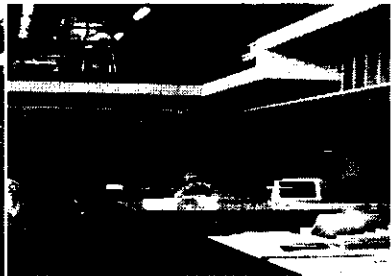
- 1층 : 참고도서 4만권 비치
- 2층 : 잡지 900종, 주제에 따라 분류
- 자료실 : 실을 구별하지 않고 주제별로 구분만 하여 열린 공간 제공
- 연 면 적 : 19,000㎡
- 건물면적 : 47,000㎡(2030년까지 자료 소장 가능)



(자료실 입구문)



(자료실 전경)



(자료 열람실 내부)

- 2030년경이면 서고의 자료보존이 포화상태가 될 것을 예상하여 현재 길 건너편 부지를 매입하여 이전 계획
- 지하 서고 현황(30,000㎡)
 - 항온항습 시설 온도 18°C, 습도 50°
 - 자료의 관리를 위해 출입자 제한(엘리베이터 카드키 사용)
 - 열람실 이용자에게 신속한 자료 제공을 위한 컨베이어 시스템 설치
 - 공간 최대 활용을 위한 모빌랙 수동 서가 설치
 - 자료의 신속한 관내 대출 및 정리를 위한 인력이동용 자전거, 전동차 활용
 - 화재시 스프링클러 작동시 자료훼손 방지를 위한 특수서가 제작
 - 예술적 가치가 있는 인쇄물은 더욱 엄격한 보존기준을 적용한 장소에 따로 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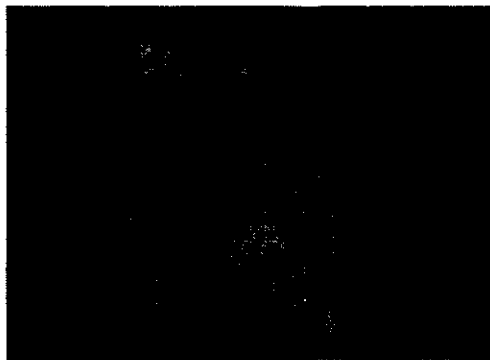
(자료를 이동하는 컨베이어시스템)



(모빌랙 서가)



(서가 배치는 연도순-1945년부터,알파벳 순)



(등록번호 1번 도서)

○ 사무동

- 큰 도로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본관 건물을 도로 쪽에서 감싸듯 건축
- 카드를 소지한 직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보안화 된 구조
- 사무실과 로비에 자연광을 최대한 끌어들이는 구조로 설계



(휴식공간)



(사무실)



(사무동)

2. 운영 현황

가. 도서보유 및 확충 : 납본제 실시

- 납본권수 : 2권
 - 독일 국내에서 출판된 저작은 2권 납본, 연간 약 90,000종 납본, 1부는 라이프찌히관으로 이전
 - 외국에서 출판된 독일어 출판물은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태리 일부와 자유 협정 하에 납본
- 납본율 : 개인·단체에서 발행하는 각종 팜플릿 99%, 홍보물 67%
- 자료납본 : 무상 기증처리
- 기타 : 특수 매거진, 필사본, 예술적 가치가 있는 인쇄물, 참고자료 등은 구입하기도 함

나. 이용 시간

- 월요일 ~ 목요일 : 10:00 ~ 20:00
- 금요일 : 10:00 ~ 18:00
- 토요일 : 10:00 ~ 17:00
- 휴관일 : 일요일, 국경일



(자료 열람실 내부 : 350석, 주로 참고자료 소장)

다. 자료 정리

- 정리 작업은 주제별로 상세하게 사서가 분담
- 알파벳 분류 위주
- 사서 직제
 - 장비 및 서지업무 담당(조수그룹 및 보조업무 담당자)
 - 알파벳 분류담당(석사학위 이상이 기술적 분류담당자)

- 내용 및 주제 분류 담당(주제 분류 사서)
-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자료 정리를 통하여 국가서지 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 배포
- 국가서지 자료는 전자자료 형태로 발간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인력이 부족한 작은 도서관에서 정리 작업을 줄이기 위하여 활용

라. 관리 및 운영 실태

- 독일 연방에 속한 도서관연합회를 통한 협의 운영
- 이용대상 : 18세 이상, 1일 10권 대출(열람) 가능
- 이 용 료 : 1년(36유로), 1달(13유로), 1일(5유로)
 - 인터넷이용료 : 6유로(1일)
- 자료 분류 : 수입순(등록번호순)
- 자료수집 : 1일 1,200권 수집(1/2인쇄자료, 1/2 비도서 자료)
 - 주제, 내용과 상관없이 망라적 수집
 - 외국에서 독일어로 출판된 도서수집
 - 독일작품이 외국어로 번역된 경우, 독일 인물, 독일 관련 주제를 다룬 외국서적도 수집
 - 나찌시대 외국으로 간 망명자의 일기, 편지 등 자료를 수집
- 자료 열람
 - 참고자료는 개가제
 - 서고 내 주제별 자료는 폐가제(지하서고 보존 자료)
 - 예약 열람 신청 후 서고 내 책 운반 컨베이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예약된 자료는 대출이 불가하며 2주 동안 예약 자료실에서 보관하고 매일 방문하여 열람 가능
- 1일 예약 도서수 : 약 2,000 여권
- 주 이용자 : 전문적 내용을 연구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
 - 학생은 지도교수의 확인서 제출
 - 전문적인 내용을 연구하는 사람은 증명서 제출
- 보존 자료의 관외 대출 금지 단, 복사는 가능
- 자료 납본 : 무료 기증
- 자료 폐기 : 폐기 억제(총망라 하여 보존)
- 자료 보안 : 자료 분실 방지를 위한 보안 시스템 운영
 - 자료 보존을 위한 상호대차를 실시하지 않고 Copy서비스 제공

- 장서점검은 실시하지 않으며 분실도서에 대해서는 YEAR MISST를 작성하여 기록함

마. 도서관 전산화 실태 및 타도서관간의 협력

- 멀티미디어 열람관 구축
- 가상 도서관연합체 구축
- 학술잡지 원격 주문 시스템 구축
- 국가서지 전자자료 개발 및 마케팅 배포
- 신체장애자(맹인)를 위한 검색 시스템(S/T)운영, 전용 승강기 설치

3. 결론 및 연수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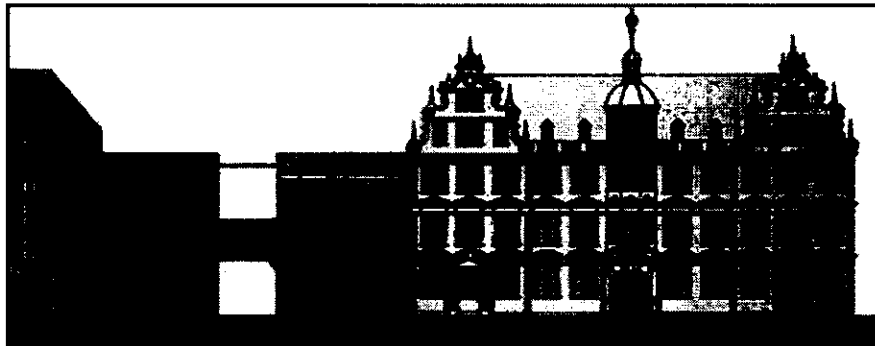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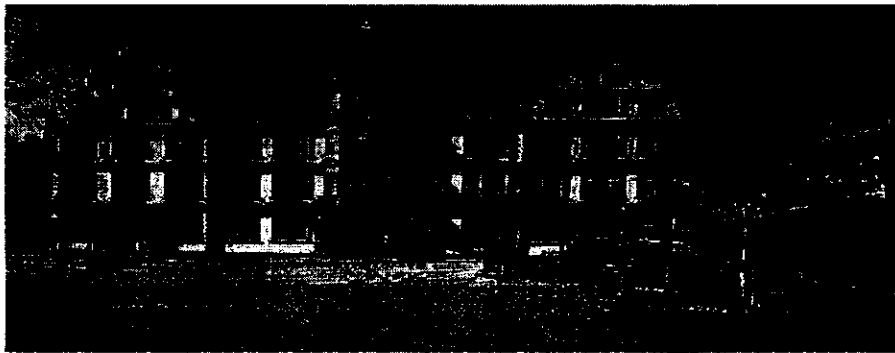
- 가. 프랑크푸르트는 라인 지구대 북부 라인강(江)의 지류인 마인강(江) 연변에 있는 상공업도시이다. 문호 괴테의 출생지로 알려졌으며, 18세기까지는 국왕의 선거 및 대관식이 거행되던 곳이었다. 1815년 빈 조약으로 독일의 4개 자유도시 중 하나가 되었고 1816년에는 독일연방 의회의 개최지가 되었다. 1848~49년에는 프랑크푸르트국민의회가 열렸으며, 1871년에는 프랑스-프로이센전쟁의 화평조약이 이곳에서 체결된 유서 있는 국제적인 도시이다.
- 나.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독일국립도서관은 2차세계 후 독일이 동서 분단을 맞이하면서 독일의 국립도서관격인 라이프찌히도서관이 동독에 있어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서독의 출판사협회가 1947년에 설립하게 된다. 1990년 라이프찌히관, 프랑크푸르트관, 베를린 음악도서관 3개관이 통합 설립되어 독일 국립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태동하게 된다.
- 다. 프랑크푸르트관은 운영의 총괄 및 모든 국내 도서관은 물론 다른 나라 도서관과도 긴밀한 상호 협력을 하고 있으며, 합동 데이터베이스, 자치시의 자료들, 국내 도서 서비스, 공동규칙과 기준마련 등 수많은 국내, 외적인 과제를 처리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자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라이프찌히관과 긴밀한 상호대차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라이프찌히관은 문학 작품, 외국서적 및 고서적의 보관 및 보존에 관한 일체의 기능(메뉴얼 복구, 자료의 마이크로 필름, 산성화 방지를 위한 기술처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 라. 1913년 이후로 발행된 모든 독일 출판물과 독일어로 된 출판물 등을 지속적으로 완벽한 수집은 물론 많은 공문서 등을 수집하여 정리함에 따라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으며 연간 44만권의 소장도서목록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 마. 독일국립도서관(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소재) 건물의 특징은 콘크리트 구조, 유리, 자연목재를 사용해서 건축되었고 자연환경 친화를 주제로 지어진 도서관으로서 면적은 19,000㎡이며 지하 3층 지상 3층의 건물에 4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지상의 5층 정도의 높이와 예술작품의 조화를 이루게 하여 설계되었고 울타리 없이 대로변의 자동차 소음을 차단하고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무동, 자료열람동, 후생동으로 구분 건축되어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설계된 건축물로 평가 되고 있다.
- 바. [사무동]은 직원들만이 출입할 수 있으며, 각 개인에게 지급된 전산 카드로 출·퇴근 시간과 주요시설 출입 등을 이용하게 하는 등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열람동]의 벽면, 로비 시설은 유리 동과 유리 시설을 활용하여 자연광의 반사광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자료실내의 서가나 열람테이블에는 인공조명을 이용하도록하여 자료관리에 신중함을 보였다. 자료실은 실을 구별하지 않고 주제별로 구분만하여 350석 규모로 열린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한국의 도서관들이 천정의 높이가 3m이내인데 비해 4~5m 정도의 높이로 시공되어 쾌적한 독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벽면을 없앤 개가열람실은 서가나 비품 등으로 공간을 적절히 구획, 자료나 이용자들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하였으며, 각 테이블마다 콘센트를 꽂을 수 있도록 하여 노트북 사용을 통한 업무를 볼 수 있게 하였으며, 유럽의 대부분의 도서관들처럼 바닥에 카페트를 깔아 소음을 줄이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토록 설계되었다.
- 사. 다양한 형태로 이용하기 편리하게 설계된 도서관을 보면서 사각의 회색 외형이 거의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 도서관 건물들과 비교해 본다. 우리도 이 제는 건축가, 경영자, 사서, 이용자, 인테리어 업자가 함께 참여해서 신중하게 만들어지는 도서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다. 자료실을 돌아보면서 조명, 조도, 바닥, 서가, 열람책상의 개인용 스탠드, 안내표시 등 모든 것들이 미학적인 계산 아래 아름답게 자리한 것을 보면서 보관에 급급한 우리의 자료실 현실을 떠올리며 서글퍼지는 것은 나 혼자만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서고의 포화상태를 대비하여 미리 도서관 근처 부지를 확보해 놓는 미래지향적인 도서관정책을 보면서 도서관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제대로 대우하는 시각에 많은 점을 배운다.

- 아. 우리나라는 도서관은 문화관광부로 이관되면서 1991년 이후부터는 도서관 사용료를 받지 않는데 비해 서유럽의 도서관들은 사용료 일부를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다. 사서들은 도서 분실율이 한결같이 아주 적다고 얘기하고 있고, 직원들의 서비스도 보다 섬세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도서관 안내자료, 목록자료, 엽서, 인터넷 사용료 까지도 유료화하여 재원으로 활용하는 서유럽 도서관의 모습을 보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유를 흔히 듣는 무료 천국, 무한 봉사, 재정 열악의 현실에 처한 우리 도서관들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해 가야 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 자. 현재 우리의 도서관은 짧은 도서관역사 속에서 지식정보의 보고로 자리하기도 전에 각종 평생교육의 터전으로 활용됨은 물론 이제는 주5 일제를 맞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휴일 없는 도서관으로의 역할까지 강요당하는 지경에 놓여 있어 도서관 직원들의 업무는 한층 더 다양화되고 가중됨을 지켜볼 수 있다. 이번 유럽지역 도서관 현장 방문을 통하여 고도로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시스템에서 근무하는 독일도서관의 사서들에 대해서는 한없는 부러움을 느꼈다. 그리고 도서관 현장이 변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정책이 변해야만 가능하기에 이러한 선진지 도서관현장 방문에는 도서관인 뿐만 아니라 발전적인 도서관정책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행정 관료들도 포함될 수 있었으면 한다.

☛ 구텐베르크 박물관도서관
GUTENBERG MUSEUM LIBRARY



www.gutenberg-bibliothek.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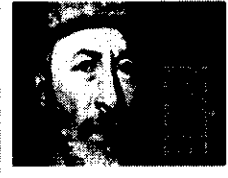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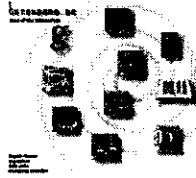
www.gutenberg-museum.de

서일민(청주 기적의 도서관)

김윤성(대전 안산도서관)

이은주(경기 화도도서관)

1. 일반 현황



- 가. 주소 : Liebfrauenplatz 5,
55116 Mainz, Germany
- 나. Tel : (++49)6131-122623
- 다. 개관: 화요일-금요일, 9:00-1:00(AM), 2:00-5:30(PM)
- 라. 휴관: 토·일·월요일, 공휴일
- 마. 장서: 8,000 title
- 바. 이용자: 도서관 이용자는 년 800 명, 박물관 견학자 제외
- 사. 요금 : 도서관 무료, 박물관 유료

1) 도서관 연혁 및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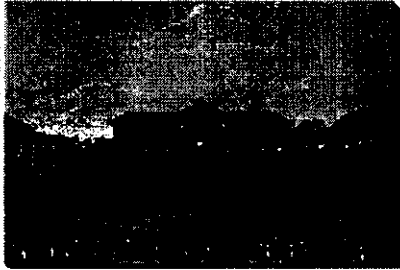
- 연혁: Gutenberg Museum Library는 구텐베르그라는 천재적인 발명가로 인해 확대된 인쇄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세워진 전문 도서관으로 시립도서관의 방 2개에서 아름다운 장서들을 가지고 개관.

년도	내용	서비스	환경	비고
1900	구텐베르그탄생 500주년 기념으로 개관	시립도서관의 아름답고 특징적 장서	Gutenberg Society 창설(613명)	시립도서관 방 2개
1912	Rheinalle의 새 빌딩으로 이사	인쇄술, 북아트, Graphics, poster, paper 등 영역 확대	시립도서관장과 박물관장 겸임	복원기술 워크숍
1926	시립도서관과 분리 계획	42행 구텐베르그 성서 구입	현 박물관의 방 하나 개방(1927)	복원 워크숍 정착
1927	현재 건물로 이사			
1945	폭격으로 건물 손상	자료는 안전하게 보존		
1962	건물 복원 완성, 전시빌딩 개관			
1963	박물관 국제적 네트워크 확대			
1978	새로운 수서 → tour, 강의 등	구텐베르그 성서(Schuckburgh Bible) 구입, 목판 two block 자료 수집		
1999	인쇄 관련 연구 확대와 지원	Moses Foundation 활동		
2000	구텐베르그 600주년 기념	Gutenberg Sponsorship Association 탄생		

○ 역사 개략:

- 조직: 전체직원은 7 명이며 서적 예술, 문헌 복원, 사서가 전문 업

무를 수행한다. Bibliotheksleitung(관장), stellv Bibliotheksleitung(부관장), Bibliothek/Bibliothekar(Dipl.사서), Bibliothek/Bibliothekar(Dipl.사서), Lesesaal und Benutzung(열람과 이용 담당), Katalog(목록 담당)의 7명



<구텐베르그 박물관 개관>



< 42행 구텐베르그 성서 >



< 새 전시 빌딩 공사 >

2) 도서관 개요와 기능

구텐베르그 박물관의 도서관은 인쇄, 책, 활자 역사의 모든 분야를 관장하는 특수도서관이다. 자료는 단행본 80,000 여권과 잡지를 소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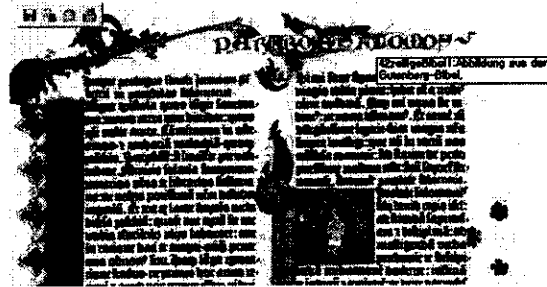
이 참고 도서관에서는 대부분의 자료들이 박물관의 폐가서고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 책과 출판물들은 대출은 되지 않고 독서실에서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독서실에도 개가제 책들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이용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내용은 전문문헌, 고판본(1500년 이전 인쇄물), 전시작품들이 있다. 일부 책과 출판물은 항구적으로 혹은 임시로 박물관의 전시빌딩에서 전시되고 있다. 전시 견학은 유료제가 되었다.

도서관의 중요한 서비스는 "Collection of Incunabula"(인큐네블러 집서), "Exbits"(전시), "Specialist Literature"(전문가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은 출판과 인쇄와 문자의 박물관의 부속도서관으로 심도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박물관에서는 견학자를 위한 다양한 tour(성인, 청소년, 주제 전문 관광)와 지속적 demonstration과 workshop이 행해진다.

○ Incunabula

incunabula는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명한 1450부터 1500년까지 유럽에서 활자로 인쇄된 서적을 말하며 주로 마인츠 시립도서관에서의 대출 자료로 이루어져 있으며 4,000 권 이상이 된다. incunabula는 16세기 이후 활자본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품격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귀중 시되고 시장가치도 높다. 1 판의 부수가 300 부를 넘는 일은 아주 드물고 현재 남아 있는 수는 3 만 이상의 서적이 15세기 중에 간

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목록은 다른 자료와 분리된 카탈로그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주제 분야 연구자들을 위하여 잘 알려진 장서중에 가장 중요한 incunabula의 경우는 microfiche 자료로 만들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의 예술적인 자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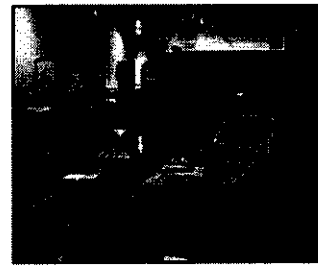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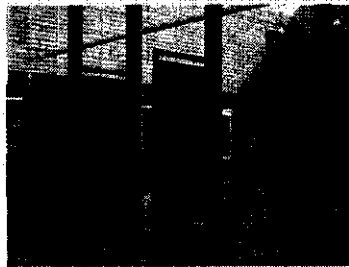
A two-volume Gutenberg Bible is bought in New York (the Shuckburgh Bible).
1965: Mainz's Stadtschreiberpreis awarded to top writers is launched by national TV station ZDF and the city of Mainz. The "town scribe" is

< 구텐베르크 성서 2차 구입 >

- 42 행 성서 : 구텐베르크가 마인츠에서 1452-1455년 사이에 인쇄한 180 copy중에 하나가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 총 1282 page로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박물관은 1926 년과 1978 년 2 회에 걸쳐 수집하여 2 권의 구텐베르크 성서를 비교해 볼 수 있게 했다.

○ Exhibits :

전시물에는 그 시대의 가장 특징적이거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리고 북아트 분야에서 높은 품질의 모든 종류의 인쇄물이 있다. 전시물은 연대순 목록처럼 많은 참고 자료와 함께 알파벳순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들은 독일 내에 분산 등록되어 있으며 핸드 프레스로 만든 외국 자료들, 애서가 소장물, 구텐베르크 박물관의 인쇄물 그리고 개인 인쇄물(사가판) 등 다양한 자료들의 전시가 있다. 전시작품은 16세기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종류의 인쇄물, 그 외 다른 것도 지속적으로 바뀌가며 전시하고 있다.



- 인쇄관련 실물자료 2500 종, 2년마다 미니 박람회
- Mainzer Minipressen-Messe : 소형 책, 개인 수제 출판사, 북 아티스트를 위한 격년제의 book fair

○ Specialist Literature(전문가 저술)

인쇄와 문자(필적)의 전 역사에 참고가 되며 그 종류와 포괄성에서 독창적인 전문가들의 보고서는 영속적으로 학생들과 연구자들과 다른 흥미 있는 이용자들에게 이용된다. 그것은 조직적으로 목록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컴퓨터화 된 것은 알파벳순으로 등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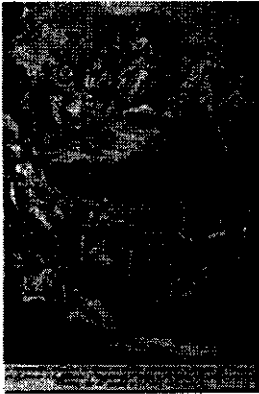
3) 자료

○ 장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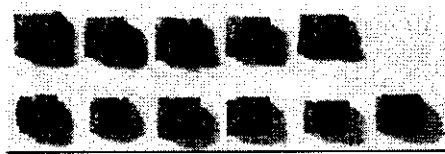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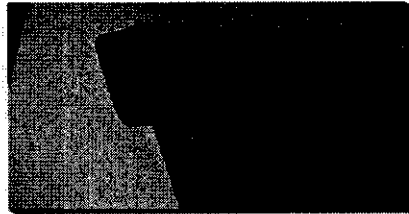
구텐베르그 박물관 도서관은 마인츠 시립 도서관의 아름다운 책들에서 시작되었으며 문자와 출판과 도서로 집중하여 망라적인 장서수집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회귀본 75,000 title 중 2579 title(6%)가 1500년 이전의 출판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 후 인쇄술, 인쇄기 및 초기 인쇄물을 기술적인 면과 아울러 예술적인 감각으로 수집하기 위한 장서정책을 세워 문자, 출판과 도서로 특화된 박물관 도서관이 되었다.

- 회귀본 : 75,000 title 중 2479(6%)가 1500 년대까지의 출판물.
- Hettler collection : 책 제본에 참고가 되는 장서,
- Mori collection : 글자체 주조 주제에 관련된 장서
- Mainzer Minipressen Archiv : 소 출판자나 예술적인 개인 인쇄사의 작품을 위한 마인츠 기록물로 박물관 빌딩의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며 자체의 별도 목록.
- 인쇄관련 실물자료 2500 종
- 10만장의 장서인. 예술적인 장서인. 16세기부터의 자료
- 기타 장서: 활자 견본 장서, 수 천점의 그래픽 컬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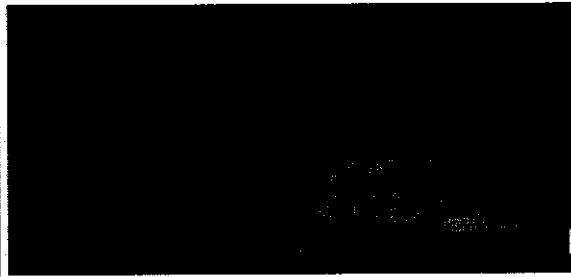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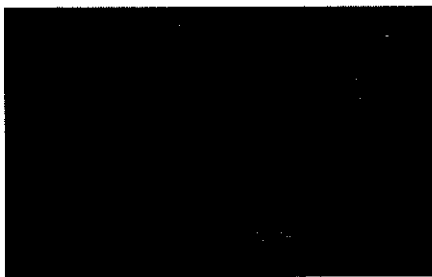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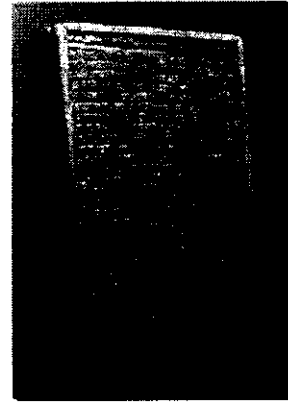
- 외국 협정자료: 청주 고인쇄 박물관과 99년부터 100 종의 자료를 장기 임대, 그 외 이슬람 자료, 일본 중국 자료 등



<영화 포스터>



<한국·중국 활자 자료>



<한국 자료>

4) 예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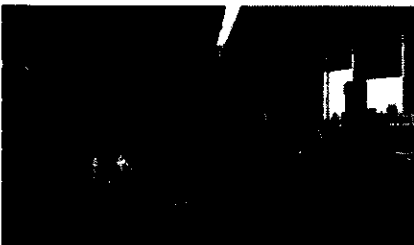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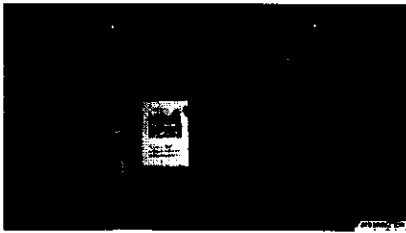
- 1년 2만유로(한화 2400만원정도)
- 고서의 수집은 거의 기증에 의존.
- 후원자 : 구텐베르그 박물관 개관시부터의 Gutenberg Society, Moses Foundation, Gutenberg Sponsorship Association 등 다양한 후원.
- 전시관의 유료화 개시

5) 시 설

- 마인츠 시의 가장 아름다운 건물 중의 하나인 Römischer Kaiser(1664년 건축 후 1945년 파괴 후 1962년 복원)와 현대적인 건물이 함께 이어져 도서관과 전시빌딩을 이루고 있다.
- Gutenberg-Shop : 관련 자료 판매
- Restaurant Codex: 이용자들을 위한 차와 식사.



<구텐베르크 외관과 레스토랑>



Dr. Claus Maywald,
stellvertretender
Museumsdirektor
und Leiter der
Bibliothek, begrüßte
die Gäste im
Lesesaal der
Bibliothek und
informierte über die
Buchbestände und
Sondersammlungen.
Der Wissenschaftler
betonte die

<인터넷에 공개된 연수단 방문 사진>

2. 운영 현황

1) 이용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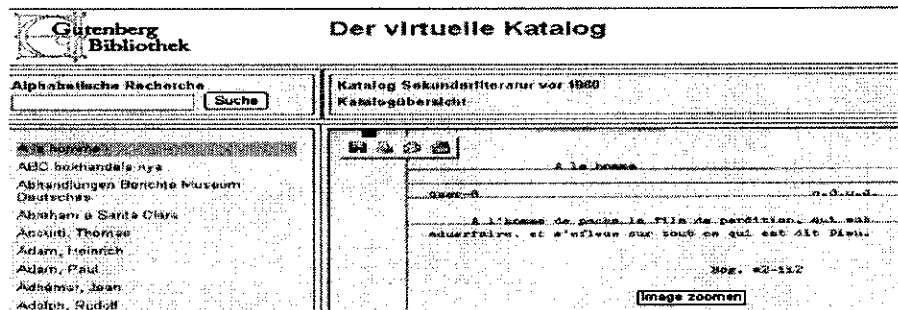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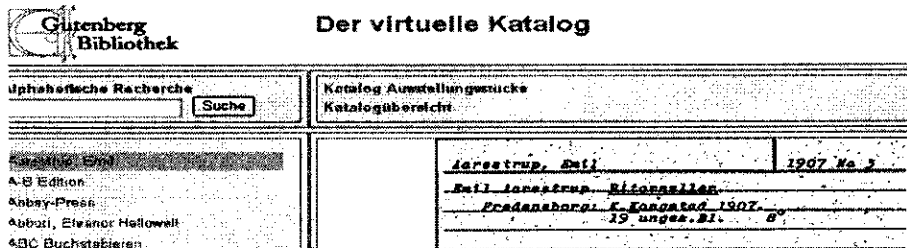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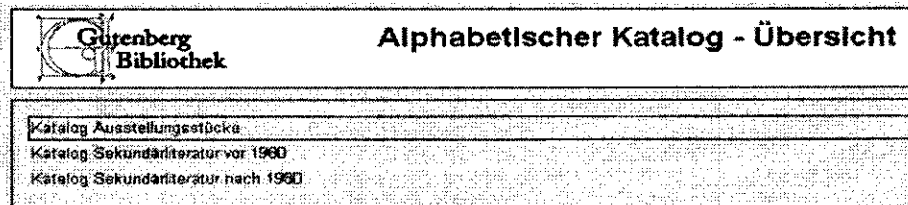
- 도서관의 자료실과 박물관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오후 5시 30분까지 개관하며 전화 상담은 오후 7시 30분까지 함.
- 도서관 자료실의 이용은 무료이며 안내대출만 가능.
- 도서관 자료실의 연간이용자는 800명 정도, 인터넷 방문자 8,000명 정도.
- 전시 빌딩의 개관시간과 관람요금은 다음 표와 같다.
 - 개관시간 : 화요일-금요일: 9시부터 18시 / 토요일: 11시부터 16시
 - 입장료 : 7세 이하 무료, 8세-18세 2유로, 성인 5유로, 가족 10유로
그 외 특별자료 관람, 협력관계, 단체, 절약 요금 등 다양한 입장료 체계.

2) 운영 방침

- 구텐베르크의 천재적인 발명과 그 가치를 되살리는 장서구성
- 인쇄, 문자, 출판 관련 전문가들에게 전문 참고서비스
- 전시빌딩에서의 지속적 시연과 행사를 통해 일반시민과 세계와 공유
- 운영관련 keyword: 삽화, 책 재본, 활자, 인쇄기술, 사가판, 미니책, 장서표, 서체, book art, 종이, 유럽 문헌 역사, 기호학, 설형·상형 문자 등

3) 자료 관리

- 자료군별 목록을 별도로 한다.
 - 1987년까지 자료: 캡슐 카타로그
 - 1997년까지 자료: 카드(메모장) 카타로그
 - 1997년부터 자료: OPAC
 - 인터넷으로 검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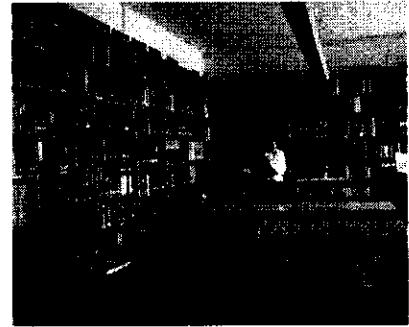


- 전시를 위해 외국과 상호 협조한다. (청주 고인쇄박물관과 자료교환)

- 개가제 자료보다 신청에 의해 열람가능한 폐가제 자료관리가 증가된다.

4) 정보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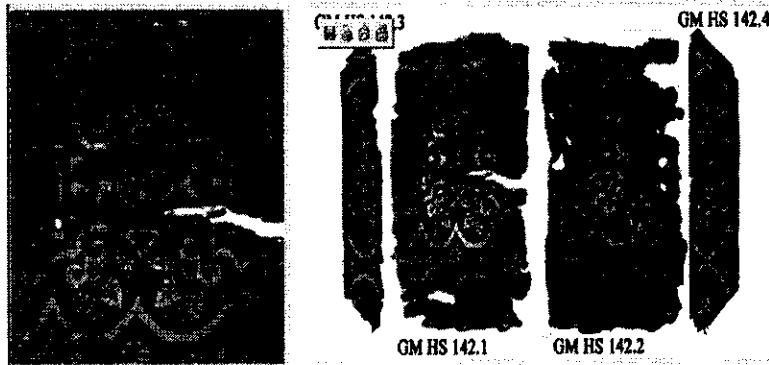
- 인쇄 기술, 예술 인쇄, 고인쇄, 문자, 서체, 제본, 책, 출판 등에 관한 전문 주제 서비스
- 지속적 워크숍 (주제별, 대상별)
- 홍보 영상물 상영(매일 수 회씩 시행)
- 인쇄 등 시연(매일 수 회씩 시행)
- 다양한 전시와 행사
- 국제적인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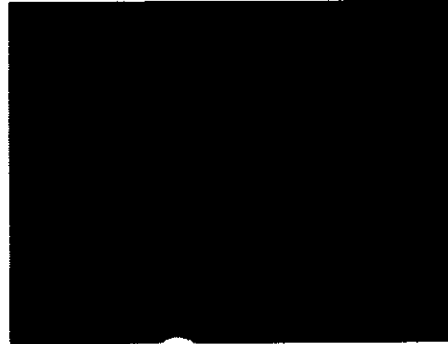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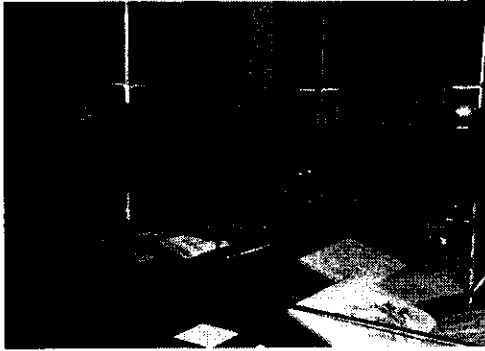
<도서관 열람실>

5) 행사 및 전시

- 워크숍: 1925년 복원에 관한 워크숍 개최가 시발점이 되어 다양한 워크숍이 실시 열린다. 워크숍의 내용은 Type founding, Typesetting, printing 등으로 관련 keyword로는 미니북, 북 바인딩, 나만의 책, 서체, 책 복원 등 책에 관련된 예술성, 기술성을 아우르는 전문 주제 분야가 있다.



- 교육 관련 워크숍 < Druckladen > : 매주 목요일 시행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박물관의 워크숍
- Demonstration : 매일 6회의 시연과 필름 공연을 통해 <살아있는 박물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전시: 전시장의 상설 전시와 기획 전시
- Book flea market : 매월 첫 토요일: 희귀하고 드문 책의 재활용
- Gutenberg Shop: 구텐베르크 박물관 관련 물품 판매. On-line shop도 운영



< 전시실과 42행 성서 >

3. 특기 사항

1) 후원자 그룹

○ International Gutenberg Society (Internationale Gutenberg Gesellschaft):

박물관의 개관과 함께 발족되었으며 그 목적은 박물관에 재정적 도덕적 지원을 하고 인쇄역사 연구에 격려하기 위함이다.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Gutenberg Yearbook을 1926년 첫 발간하고 내용은 international acclaim의 저자들에 의해 쓰여진 독일어, 영어, 불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로 쓰여진 연구들로 이루어졌다. 연감 발행뿐만 아니라 Gutenberg Prize도 제정했으며 현재 38 개국의 2000명의 회원이 있다.

○ Gutenberg Sponsorship Association:

1994년 인쇄에 관심이 있는 인쇄업과 출판사 혹은 개인이 주축이 되어 박물관에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며 박물관의 미래를 준비한다.

○ Moses Foundation:

1999년 Horst August와 Claudia Mose가 연구와 특별 수서를 위해 기금을 마련했으며 기금이 쓰이는 용도가 심도 있는 정보 서비스를 위한 개별 카탈로깅과 활자 변환, 동아시아 자료 등 특별 자료의 수서와 제본 등 다양한 목적에 쓰여진다.

2) 부속 시설

○ Gutenberg shop

Cyberstore <http://www.gutenberg-shop.de>

○ Gutenberg Restaurant Codex

3)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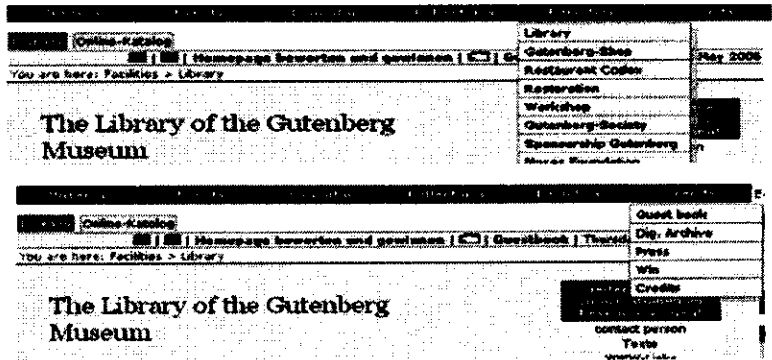
○ The Gutenberg Prize

마인츠시와 함께 196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인쇄 분야에서 들어나는 기술적, 예술적, 학술적, 과학적 성공에 주어지며, 1994년부터는 마인츠시와 라이프찌히의 구텐베르그 상은 alternate years(격년)으로 수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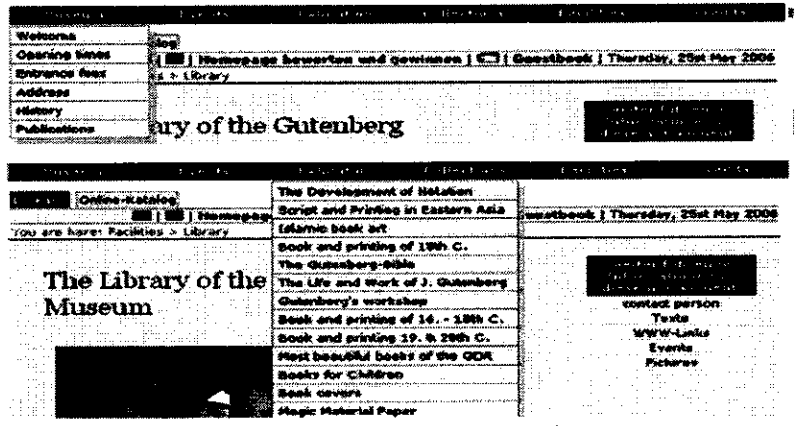
○ 구텐베르그 연감

4. 방문 후기

잠시 들려 본 박물관의 한 방에 자리한 열람실은 보기에 일반 공공도서관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루는 책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하여 박물관 부관장이며 도서관을 책임지고 있는 Dr. Claus Maywald-Pitellos의 친절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각 나라마다 도서관의 문화기관으로서 차지하는 예산 비중이 다르지만 구텐베르그라는 그 지역 인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The Library of Gutenberg Museum Library는 시립도서관의 한 방에서 시작했지만 후원 그룹이 함께 태동하여 구텐베르그 박물관의 운영 방향에 시민의 소리가 함께 반영되며 발전해 왔다 할 수 있다. 초기 인쇄 시기에는 권수는 적지만 아름다운 책에 대한 욕구가 강하여 미적 감각이 도서의 주요 요소가 되며 개인 소유를 나타내는 수 많은 아름다운 장서표 등도 수집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기술적 발명의 전 후 시대를 예술적, 과학적 관점에 함께 접근한 수서정책이 현재도 예술적 서적 수집과 그 자료를 통한 정보서비스를 이용자의 전 계층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한 인터넷이라는 이 시대의 전자적 전달 매체를 축적과 네트워킹을 위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현상에서 무언가 하나의 의미를 찾아 오랜 기간에 걸쳐 키워내는 정성이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흔히 우리가 현장에서 소홀히 하는 엽서, 리플릿 자료, 실물자료에 대한 의미를 재인식하게 함과 동시에 목록화함으로써 걸러질 수 있는 많은 지적 유산 만들기가 도서관에 맡겨진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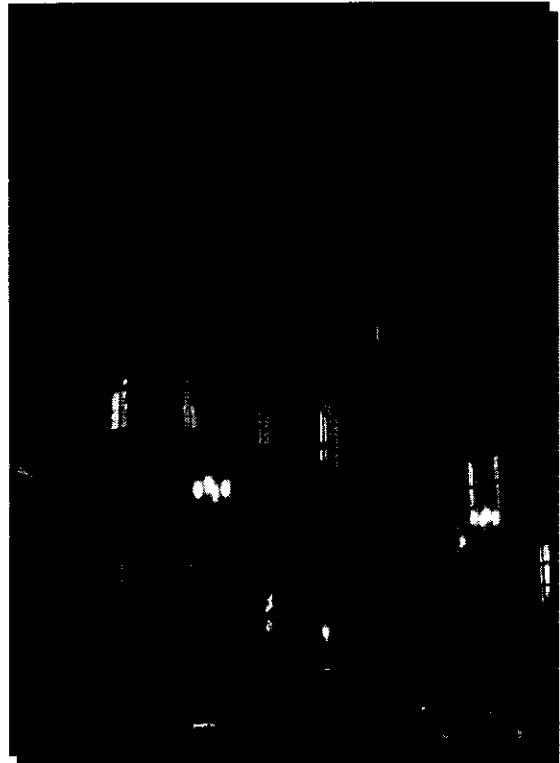
↓ 체코 개관

백담의 나라, 인형극의 나라, 새롭게 일어서는 체코 공화국

동유럽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체코는 늘 최고의 찬사를 받는다. 중세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작은 거리들과形形色색의 아름다운 프라하성은 우리를 중세로 초대한다. 음악과 인형극 낭만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체코에서 중세의 숨결을 느껴보자.

- 국 명 : 체코 공화국 (The Czech Republic)
(1993.1.1 체코슬로바키아연방은 체코 공화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 분리)
- 수 도 : 프라하 (약1,161,938명)
- 인 구 : 10,219,000명
- 면 적 : 78,864km² (한반도의 약1/3. 평지:산악=7:3)
- 주요도시 : 브르노(Brno), 오스트라바(Ostrva)
- 주요민족 : 체코인(94%), 슬로바키아인(3%), 폴란드인, 독일인, 헝가리인 등
- 주요언어 : 체코어
- 종교 : 로마 카톨릭 (39%), 신교(2%)
- 지 리 : 총면적 78,864km²의 체코는 중부 유럽에 속해 있고 주위로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1,000~1,600m의 산맥에 둘러싸인 보헤미아 분지와 모라비아로 나뉜다.
- 기 후 :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사정이 다른 2개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부의 보헤미아(수도 프라하가 있다). 동부의 모라비아(중심지는 브르노)가 그것이다. 대체로 온화한 대륙성 기후로 나라의 대부분에 500mm 이상의 강우량이 있으며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온다. 대륙성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중간지대라고 할 수 있다.
- 인구구성 : 총인구의 94%가 체코인이고 나머지 4%가 슬로바키아인이다. 폴란드와 경계지인 오스트라바에 소수의 폴란드인이 거주하고 있고, 보헤미아에 약 6만의 독일인이 살고 있다.
- 종교 : 역사적으로 기독교와 깊은 연관을 가져왔으나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종교가 사회주의 이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종교적인 성향이 강하지 않은 바, 전체 인구의 약 40% 내외만이 종교를 갖고 있는 상태이며 전체인구의 종교구성비 : 로마카톨릭 (39%), 신교(2.5%), 후스파(1.7%)로 이루어져 있다.

└ 체코국립도서관
클레멘티눔(Klementinum)]



www.nkp.cz

정의현(광주중앙도서관)
조유진(강원삼척도서관)
유옥환(경기석수도서관)

1. 일반 현황

- 주 소 : Národní knihovna ČR Oddělení rukopisů a st.
tisků Klementinum 190 110 00 Praha 1
- 전 화 : +420 221 663 280
- U R L : <http://www.nkp.c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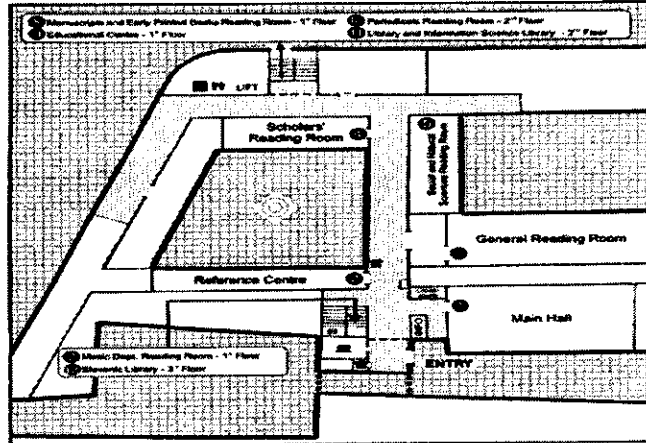
가. 도서관의 역사적인 특징

○ 프라하 카렐 다리의 구시가지 쪽에 위치한 클레멘티눔은 16세기 날로 세력이 커지는 후스파에 공포를 느낀 황제 페르디난도 1세 (Ferdinand I)가 카톨릭 예수회를 후스파에 대항하기 위한 종교 세력으로서 프라하에 초청하여 1556년에 성 클레멘트의 도미니크 수도원에 본부를 설치하고 클레멘티눔이라 명명한 것이 그 시초가 되었으며, 1601년에는 프라하 최초의 예수회 교회인 성 살바토르 교회(kostel sv.Salvatora)가 세워짐.

○ 1618년에 추방된 예수교파들은 2년 후 다시 돌아왔다. 이들은 이교도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모습이었고, 1622년에는 두 대학을 합병함으로써 예수교회가 프라하의 고등교육을 독점하도록 했다. 전인구의 70%를 이교도라고 믿었던 예수교파는 체코 전역에 걸쳐 이단 서적을 수색하여 수천권씩 불태웠다. 1653년부터 1723년까지 클레멘티눔에는 합스부르크 가(家)의 두터운 보호를 받으면서 2헥타르의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었다.-이 확장 공사로 30여 채의 가옥과 3채의 교회가 철거되었다.- 이 넓은 대지에 세 개의 교회, 예배당, 도서관, 강당, 천문대, 출판국 등이 건설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프라하에서 프라하 성 다음의 규모를 자랑하는 거대한 복합 건축물이 되었다.

○ 1773년에 로마 교황이 이 교단을 해체하자 예수교파는 프라하를 떠나야 했고, 교육은 세속화됐다. 이후 클레멘티눔은 프라하 대학 도서관이 되었다가, 현재는 체코 국립 도서관 및 국립 기술 도서관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550만권의 장서를 자랑하고 있다. 클레멘티눔 안에 있는 '거울 예배당'에서는 클래식 음악회가 자주 열리고 있으며 장엄하고도 우아한 바로크 양식의 도서관실이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다.

라. 시설 (배치도)



2. 운영 현황

가. 이용시간

- 평 일(월~금) 08:00~22:00
- 주 말(토) 08:00~19:00
- 휴관일 매주 일요일
- 자료실별 세부적인 운영시간

구분	Mon - Fri	Sat
General Information	9.00 - 17.00	closed
NL Publications Sales Desk	9.00 - 17.00	closed
Main Hall		
Information	9.00 - 19.00	9.00 - 19.00
Circulation Desk	9.00 - 19.00	9.00 - 19.00
Catalogues	9.00 - 19.00	9.00 - 19.00
Library Cards	9.00 - 13.30 14.00 - 18.30	9.00 - 13.30 14.00 - 18.30
Photoduplication Services	9.00 - 13.30 14.00 - 18.30	9.00 - 13.30 14.00 - 18.30
Reference Centre		
Consultations	9.00 - 19.00	9.00 - 19.00
Bibliographic & Research Services	9.00 - 19.00	9.00 - 19.00
Union Catalogues	9.00 - 19.00	9.00 - 19.00
Interlibrary Loan Services	9.00 - 19.00	9.00 - 19.00
Internet access	9.00 - 19.00	9.00 - 19.00
Reading Room	9.00 - 19.00	9.00 - 19.00

구분	Mon	Tue	Wed	Thu	Fri	Sat
General Reading Room	9.00 - 22.00	9.00 - 22.00	9.00 - 22.00	9.00 - 22.00	9.00 - 22.00	9.00 - 19.00
Scholars Reading Room	9.00 - 19.00	9.00 - 19.00	9.00 - 19.00	9.00 - 19.00	9.00 - 19.00	closed
- documents subject to special protection ré	9.00 - 12.00	9.00 - 12.00	9.00 - 12.00	9.00 - 12.00	9.00 - 12.00	
	13.30 - 18.30	13.30 - 18.30	13.30 - 18.30	13.30 - 18.30	13.30 - 18.30	

Social & Natural Sciences Reading Room	9.00 - 19.00	9.00 - 19.00	9.00 - 19.00	9.00 - 19.00	9.00 - 19.00	9.00 - 19.00
- Self-service copying						
	9.00 - 18.30	9.00 - 18.30	9.00 - 18.30	9.00 - 18.30	9.00 - 18.30	9.00 - 18.30
- Non-book Materials						
	9.00 - 12.00	9.00 - 12.00	9.00 - 12.00	9.00 - 12.00	9.00 - 12.00	9.00 - 12.00
	14.00 - 18.30	14.00 - 18.30	14.00 - 18.30	14.00 - 18.30	14.00 - 18.30	14.00 - 18.30
Periodicals Reading Room	9.00 - 19.00	9.00 - 19.00	9.00 - 19.00	9.00 - 19.00	9.00 - 19.00	9.00 - 14.00
- Self-service copying	9.00 - 18.30	9.00 - 18.30	9.00 - 18.30	9.00 - 18.30	9.00 - 18.30	9.00 - 13.30
Manuscripts & Early Printed Books BR	9.00 - 19.00	9.00 - 19.00	9.00 - 19.00	9.00 - 19.00	closed	closed
Music Department Reading Room	14.00 - 19.00	9.00 - 19.00	closed	14.00 - 19.00	9.00 - 19.00	closed
Th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Library	9.00 - 19.00	9.00 - 19.00	14.00 - 19.00	9.00 - 19.00	9.00 - 19.00	9.00 - 14.00

Slavonic Library	Mon - Fri	Sat
Circulation Desk, Reading Room	9.00 - 19.00	9.00 - 14.00
Union Catalogues Department	Mon - Fri	closed
	9.00 - 16.00	
	Mon - Fri	Sat
P.R. and Marketing Department	9.00 - 16.00	closed
ISBN & ISMN	9.00 - 11.00 14.00 - 16.00	closed

나. 일반현황

- 장 서 : 6,120,834부
- 운영예산 : 5,064,139(000□□CZK)

다. 도서관운영의 특성

- 체코국립도서관은 2005년 6월 13일~16일 중국 윈난성 리장(中國 雲南 麗江)에서 개최된 제7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회의에서 "제1회 직지상(直指賞)" 수상자로 선정된 곳임.
- 국립도서관 자체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천문학 분야를 담당하고 있음.

라. 자료 관리

- 온·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완비하였으며 복원부서(8-10명 정도)가 별도로 있어 자료의 복원을 담당하고 있음.
-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필사본 일만여 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를 CD-ROM으로 디지털화 하는 과정에 있음.

마. 주요 자료실 소개

-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에서는 도서관에서 출판한 책이나 팸플릿, 그림 등을 판매하면서 도서관의 종합안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왼쪽에는 자료실 이용자들이 외투와 가방 등을 보관하는 보관소와 개인 사물함 이용코너를 볼 수 있다.
- 자료열람실은 총 10개를 특화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음악, 필사본, 자연과학, 도서관학 자료실 등임.
- 10여개의 자료열람실은 약 220여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며, 각 자료열람실마다 참고도서, 백과사전, 세계언어사전 등 보조자료를 갖추어 놓고 있음.
- 자료실(general reading room) 안쪽에는 목록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90년을 기점으로 하며 그 이전의 자료는 목록함의 카드를 이용하는 한편, 이후 자료는 온라인 검색을 통하여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PC 검색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거울예배당
 - 부속건물인 거울예배당은 예배, 콘서트, 의식 등의 행사를 치르는 장소이며 음악회 개최에 따른 시설 및 장소를 제공해 주는 동시에 그에 따른 임대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피아노 등 부수적인 것을 구입할 때 활용함. (전체 도서관 운영예산에 견주면 극히 적은 금액임)
 - 1일 평균 2-3회의 콘서트가 개최되고 있음.
- 예수회도서관 홀
 - 1727년에 건립된 예수회 홀은 16C에서 18C에 걸친 약 2만권의 인쇄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주로 라틴어, 독일어, 이탈리아 자료임
 -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1층에는 주로 이용빈도가 높은 종교, 철학, 문학자료를 비치하는 한편, 2층에는 수학, 천문학, 예술자료를 비치하였음.
 -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목록 신청 후 일반인도 열람이 가능함.
 - 고서전시회를 위해 별도로 대여하기도 함.
- 천문학 홀
 - 1722년 예수회가 천문학탑을 세웠으며 프라하 시내를 볼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하기도 함.

- 170여개의 나선형 계단을 통하여 맨 위층까지 올라갈 수 있음.
- 천문학 또는 기상관측에 사용하던 물건을 전시하고 있으며, 온·습도 및 강우량을 측정한 200년간의 기록이 함께 소장되어 있다고 하여 탄성을 자아내기도 하였음.

5. 체코국립도서관의 운영프로그램과 계획

○ 장기연구와 개발프로그램

- 디지털자료의 보존과 열람을 위한 실제적인 연구단체의 설립
- 다양한 정보원에 접근하기위한 방법으로 다른 기관과 상호 통용되는 단일한 방법을 연구하기 위한 기관설립

○ 국가정보와 개발계획

- 상호협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지기사의 단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와 통합
-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지역의 오랫동안 보관되어 온 음악소장품들의 주제목록 조사
- 도서관에 소장된 슬라브어로 된 신문자료 ; 외국에 있는 오래된 러시아 역사자료에 대한 일부 장서의 마이크로 필름화 등 전산화 추진
- 고대, 중세, 근대에 이르는 라틴과 그리스 저자에 대한 저작물과 연구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산 데이터베이스 작성
- OCLC 최초 연구서비스
- EBSCO 데이터베이스 : 인류학과 사회과학에 대한 과학정보원
- R&D를 위한 조제분류 ; 음악, 도서관학
- 사서를 위한 정보원, 그리고 정보과학

○ 국가적인 연구와 개발계획

- 양피지에 대한 개선된 소요경비 평가
- 디지털 자료에 대한 실제적인 구조
- 문화적인 적용 : 전자정보원에 대한 접근 해결
- 문화적인 관습 : 복사 그리고 복제, 보존과 조사를 위한 도구들
-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서적에 대한 물리적인 관리
- 홍수에 의한 피해의 제거

○ 그 외 다른 R&D 계획

(국가계획 LPIS ; Library Public Information Services Programme)

- 1) LPIS 프로그램을 위한 중앙 센터기능

- 2) 기록정보와 기초 컴퓨터 자료 이해를 위한 훈련과정
도서관전산화 ; 사서로써 전산화에 대하여 숙지해야 할 것
LPIS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NLCR (체코국립도서관) 훈련센터
의 컴퓨터 강연출 내외부개선
- 3) 도서관 정보서비스를 위한 디지털도서관과 자료 수집
- 4) NLCR 의 일반적인 목록의 옛날식 목록으로의 전환
외국 단일 목록에 대한 옛날식으로의 전환 : 1527-1964기간 내 일부
- 5) NL에 소장되어있는 역사적인 자료의 디지털화
- 6) Kramerius : 오래된 자료가 종이상태에 따라 손상되지 않도록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배부하고 마이크로필름화하는 국가적인
프로그램 운영
- 7) 2004년 체코언론기관의 데이터베이스화
- 8) 체코 국가 인터넷정보와 국가자료의 접근방법으로써 동일한 정
보의 취득방법
- 9) CASLIN의 개발 : CR의 단일목록
- 10) 2003-04년 기간내 CR기관내의 사서의 봉급, 연령, 교육정도에
대한 분석 실시
- 11) 2002년 홍수에 의한 피해 문화재 복구를 위한 문화단체의 설립
- 12) 필사본 데이터베이스의 온라인을 위한 교환연구방법
- 13) 바그다드 국가도서관을 위한 조언

6.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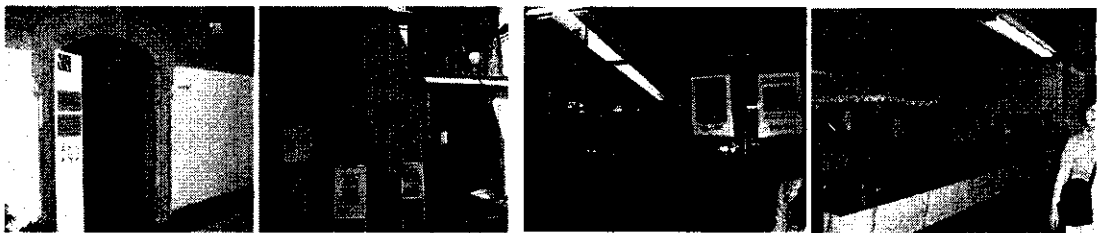
- 가. 2010년에는 국립도서관의 장서저장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예정
으로 철저하고 상세한 조사를 한 끝에 Hardcanska 시에 현재 부지
확보후 건축 공모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5년내지 7년 후면 새로운 도
서관 건물이 추가로 건립될 것이라고 함.
- 나. NLCR은 전자네트워크방식으로 가깝고 먼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NL은 돌로 세워진 고전적인 도서관이며 동시에 벽이 없
는 활력있는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음.
- 다. 또한 새로 지워질 건물은 향후 50년이상을 책임질 충분한 저장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함.

7. 방문 후기

- 가. 예수회 수도원으로 사용되다가 후에 현재의 도서관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데 도서관의 역사만큼 건물도 옛날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으며 파피루스로 만든 고대의 서적을 보존하기 위해 온도와 습도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음.

- 나. 도서관전산화 등 실제적인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도서관이 체코 국립도서관에 비해 뒤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도서관을 박물관처럼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그들의 문화가 도서관을 더욱 발전시키지 않았나 생각됨.
- 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규모에 놀라웠으며 직원 미트카 베이소바의 친절하고 현지 통역 가이드 유선비 님의 매끄러운 통역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 라. 아쉬운 점은 도서관을 방문한 시간이 오전 9시였는데 현지 직원과 건물앞에서 만나 바로 시설안내로 이어졌다. 처음 회의실 등에 안내되어 도서관의 기본 현황(역사, 예산, 직원, 기능, 운영방향, 이용현황 등)에 대하여 유인물과 함께 설명을 듣고 난 후, 관장 또는 간부직원들과 우리 연수단과의 대담형식으로 질의응답시간을 가지고 이어 담당직원과의 투어로 이어지는 설명이 진행되었다면 더욱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이용자에게 방해된다는 이유로 자료실 입구에서 간단히 보고 나오는 정도로 그친 것이 아쉬웠으며, 총체적으로 안내되지 못하고 현지 직원이 설명하는 곳에 한하여 보고 들을 수 밖에 없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 마.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체계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과정을 거쳐 제한된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견학 도서관의 우수성을 알고 국내에 벤치마킹하는데 소출항이 없어야 하겠다는 소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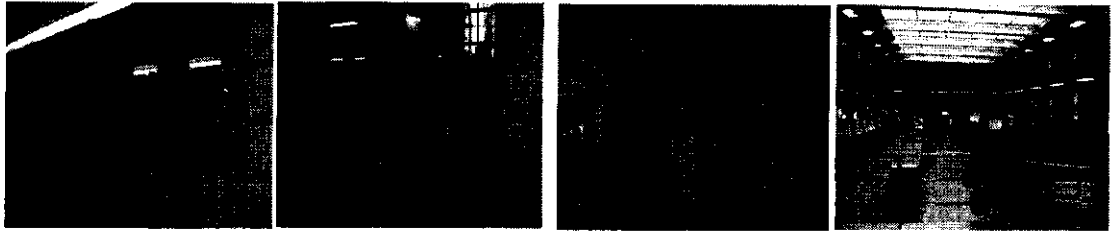


<건물 출입문>

<건물입구전경>

<종합안내및도서관매소>

< 보관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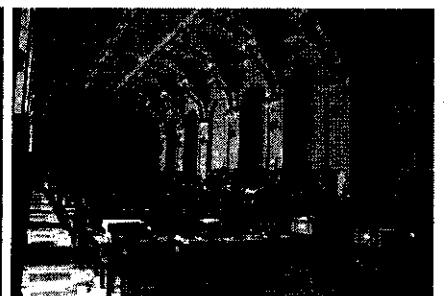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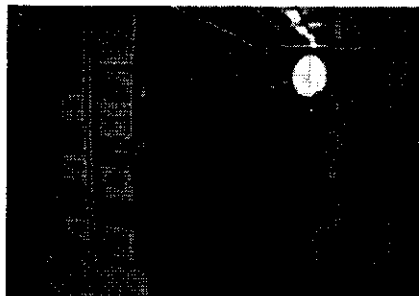


<보관함및판매책 전시>

<분실방지기>

<자료열람실 입구 복도>

<자료열람실 종합안내>



<자료열람실 내부전경>



<도서관복도>



<도서관 안내 설명을 들으며>
(좌측 현지도서관직원, 좌측 두 번째 통역가이드)



<건물내 휴게 광장>

▣ 프라하시립도서관

USTREDNI KNIHOVNA MKP

The Municipal Library of Prague



www.mlp.cz

이상희(경북 포항도서관)

탁순기(충남 서산도서관)

박향미(전남목포공공도서관)

1. 일반현황

가. 도서관 소개

- 1891년 프라하 최초 시립도서관으로 개관하였다. 현재도서관 건물은 1903년에 지어진 것으로 1920년에 도서관으로 개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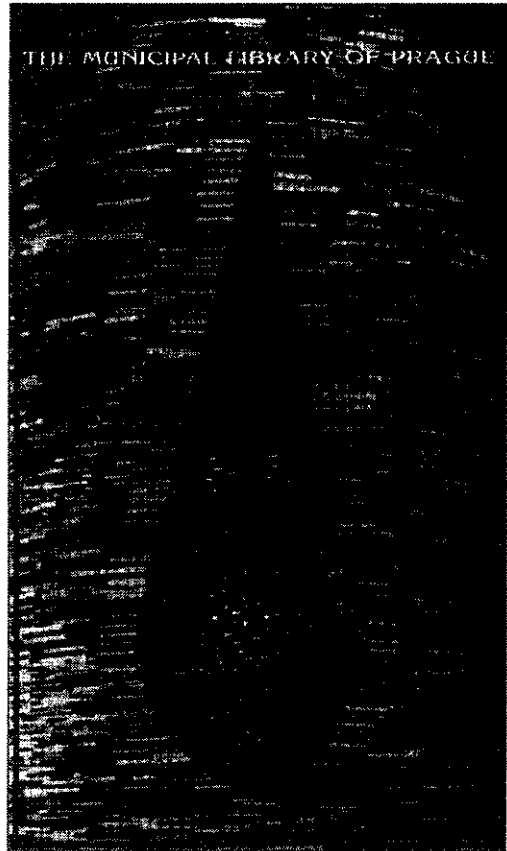
이후 1996년부터 1998년까지 보수공사를 하여 1998년 재개관 하였다.

도서관 건물 뿐 아니라 도서관 전체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개관한 것이다. 부서별로 각 실과 시스템이 구분되어 있던 것을 열린 공간으로 통합하여 도서관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 도서관 소장 자료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중앙자료실을 비롯하여 성인, 어린이와 청소년, 음악, 연극, 언어관련 부 등을 설치하여 정보서비스의 제공하고 있다.

- 프라하 시립도서관 본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90명이며 50개 분관에 450명의 직원이 있다.

- 자료실 및 열람실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관리하는 홍보부서와 IT 관련 부서가 있으며, 지하에는 영화나 공연 등이 진행되는 문화센터역할을 하고 있는 홀이 있다.



도서관 입구에 세워놓은 책 조형물

2. 운영상황

가. 이용안내

- 이용대상 :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이용요금
 - 내국인 - 15세까지는 무료 / - 성인은 60코루나
 - 외국인 - 보증금 제도 1,000코루나(회원 탈퇴 시 반환)

- 연체료 - 하루 3코루나
(비싼 연체료를 책정한 이유는 반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
- 예약금 - 1권당 10코루나

나. 이용시간

Adults, Children, Youth, Sound materials, Music, Audio points		Automated, Internet access, Barrier-free access	
address	Mariánské nám. 1/98, Prague 1	Opening hours	Spring opening hours from 3.7.
tel.	222 113 555	Mo Closed	Mo Closed
e-mail	ustredniknihovna@mlp.cz	Tue 09:00 - 20:00	Tue 09:00 - 20:00
copying	A3, A4	We 09:00 - 20:00	We 09:00 - 20:00
		Thu 09:00 - 20:00	Thu 09:00 - 20:00
		Fr 09:00 - 20:00	Fr 09:00 - 20:00
		Sat 10:00 - 17:00	Sat Closed
Reading room			
address	Mariánské nám. 1/98, Prague 1	Opening hours	Spring opening hours from 3.7.
tel.	222 113 338, 222 328 208	Mo 09:00 - 20:00	Mo 09:00 - 18:00
e-mail	ustredniknihovna@mlp.cz	Tue 09:00 - 20:00	Tue 09:00 - 18:00
copying	A3, A4	We 09:00 - 20:00	We 09:00 - 18:00
		Thu 09:00 - 20:00	Thu 09:00 - 18:00
		Fr 09:00 - 20:00	Fr 09:00 - 18:00
		Sat 09:00 - 17:00	Sat Closed

다. 각실 소개

○ VRACENI KNIH

중앙자료실을 들어가기 전 빌려간 책을 반납하고 연체상황을 알려주는 곳이 따로 마련이 되어있다. 또한 연체료를 지불하는 곳 역시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다. 일주일중 이곳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화요일과 수요일에 제일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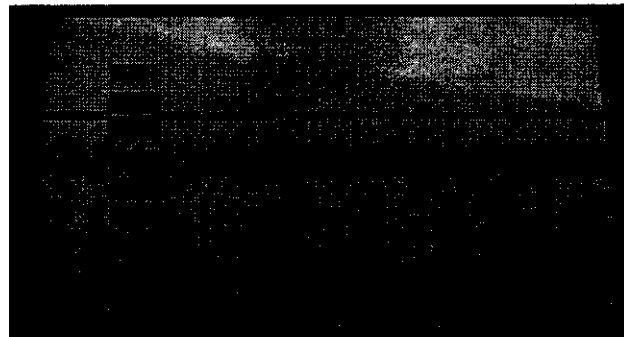
○ KNIHOVNA

중앙자료실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15세 이상 성인들을 위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장서분류는 장르가 확실한 자료들은 10개의 그림분류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 자료는 A, B, C...순서로 자료를 정리해 놓고 있다.

※ 그림분류의 예

- 총 그림 : 추리소설
- 독수리 그림 : 전설
- 남·여 그림 : 로맨스
- 웃는 입술 그림 : 코믹



- 전체 장서 중 10만권 정도는 개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50만 권은 지하에 보관하여 폐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폐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자료는 컴퓨터를 이용해 필요한 자료를 주문하고 2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자료를 이용자가 입수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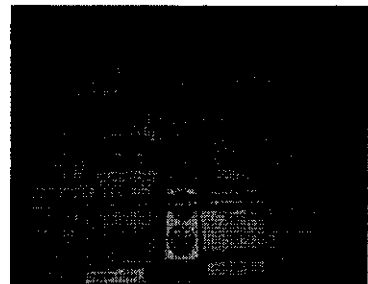
- 입구데스크는 대출을 하는 곳으로 이용카드로 대출을 하면 반납일이 적힌 영수증을 이용자가 받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도서관 천장의 그림은 20년 전의 그림을 그대로 복원한 것이다.



<중앙자료실 전경>

- 자료실 안에는 당일 돌아온 책들을 정리해 놓은 코너와 일반인들에게 인기 있는 책들을 모아 둔 코너가 있다. 이 코너에 전시하고 있는 자료들은 하루가 지나면 다른 자료로 교체가 된다. 또한 각종 문학상을 수상한 책들만 따로 전시해 놓은 코너들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문학상 수상작>

- 보존 가치가 있는 책들은 대출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래된 자료는 다른 도서관이나, 교도소 등 필요로 하는 곳에 기증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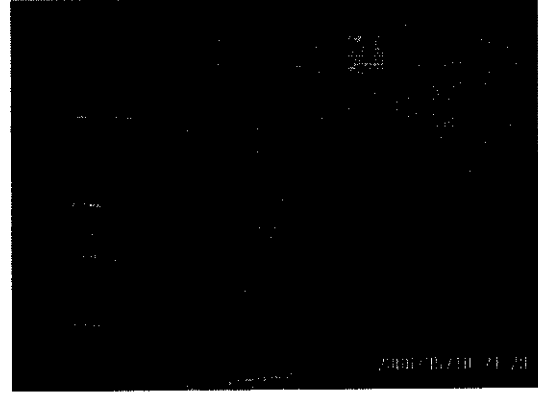
- 중앙홀을 중심으로 왼쪽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이곳의 자료들 역시 A B C ...순서로 정리를 해 놓고 있지만 별도 띠 라벨을 선정하여 초록색은 유아를 위한 자료, 노랑색은 중등학생을 위한 자료, 빨강색은 15세 이상까지를 위한 자료로 표시하여 연령별로 정리되어 있다.

- 청소년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별도의 대출과 반납코너를

두고 있으며 정보제공 코너와 어린이를 위한 놀이코너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자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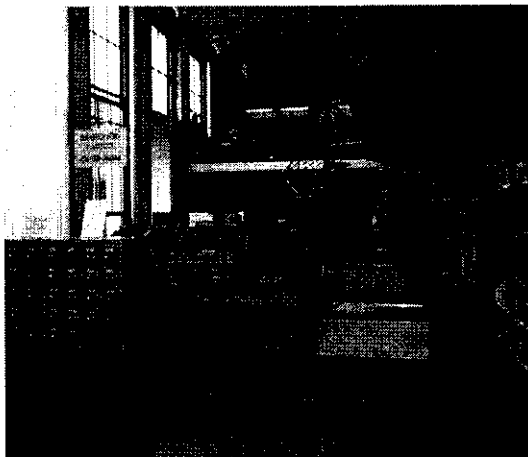
<대출 반납 코너>

· 또한 지역의 회의와 행사를 하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으며 도서관 단독 활동뿐 아니라 주변의 초 중 고등학교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테마를 설정하여 독서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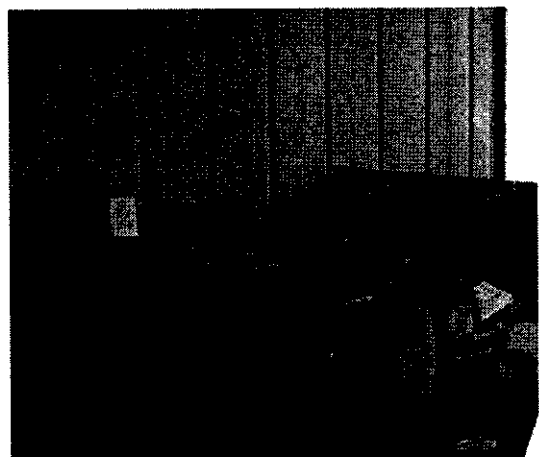
○ 음악자료 부

· 체코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오래된 음악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음악파트에 관한 자료는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고 음악에 관련된 책뿐만 아니라 악보 등도 소유하고 있다.

· 여기서 대출하고 있는 것은 카세트, CD 자료뿐만 아니라 악보를 복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악보를 대출하여 본인이 직접 전자피아노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피아노를 갖추고 있다.



<음악자료 부 전경>



<전자피아노 및 음향코너>

· 전체적으로 기타자료등도 마찬가지로 대출한 자료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 시청각 기능을 할 수 있는 각 코너가 준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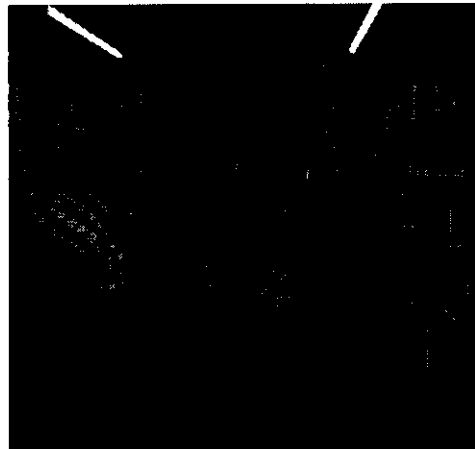
- 이곳의 자료들은 훼손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에 보관하고 있으며 CD, TAPE 등 자료대출은 무료이다.

- 현재 국회에서 음반 등의 저작권과 관련된 저작물의 대출에 대해 대출료를 받자는 안이 논의 중에 있으며 도서관 측에서는 이 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 언어영역 자료 부

- 외국어로 쓰여진 책들이 비치되어 있는 곳이다. 라틴어 계열, 슬로바키아어, 러시아어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외국어로 된 책은 영어와 독일어로 된 책이 제일 많다. 또한 이국인들 중 베트남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에 베트남어 책들이 많으며 우크라이나어 책들도 소장되어 있다.

- 한국어에 대한 자료는 잡지 또는 팜플렛등을 한국대사관을 통해 소장하고 있으며 일본어에 관계된 책은 일본대사관에서 정기적으로 보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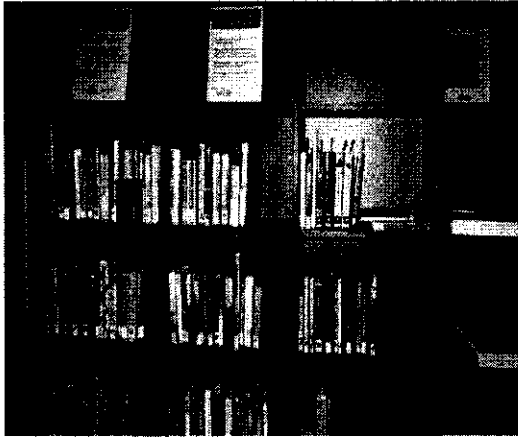
○ 일반 자료(성인자료실) 부

<언어부 자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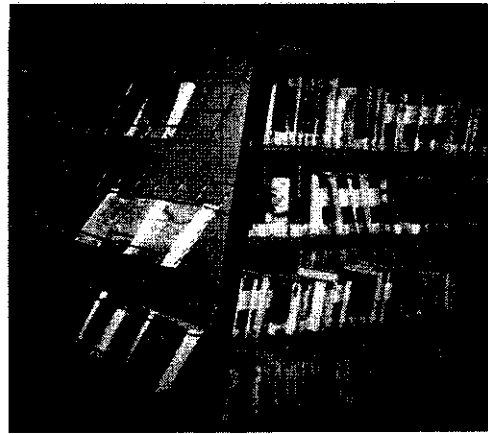
- 이곳은 일반인들을 위한 책들로 구성되어있다. 정리방식은 음악부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철학, 정치, 역사, 자연과학, 예술, 교육, 체코 문학, 언어학 등의 자료들이다. 영어, 독일어 등의 문학작품도 있으며 카세트와 함께 견비되어 있다.

- 도서를 예약하여 대출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예약된 책들은 카드와 함께 예약 서고에 꽂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사서들의 추천도서나 신간도서가 따로 전시되어 있는 코너와 완전 최신 신간들은 유리상자 안에 보관하여 이용자들에게 전시하고 있다.



<예약도서 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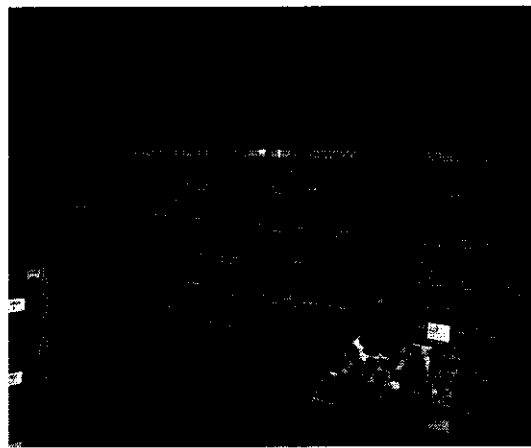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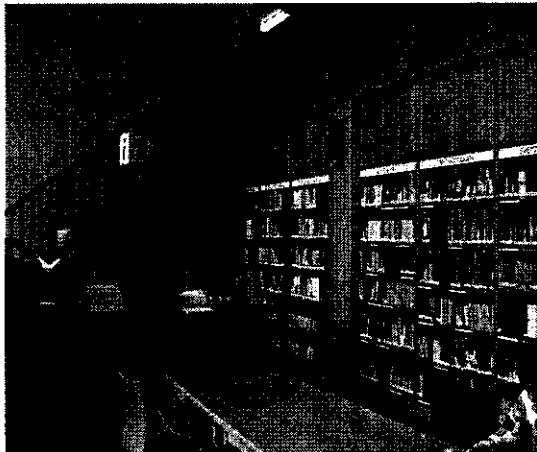


<사서추천도서 코너>

○ 연극관련 부

• 도서관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평을 받은 이곳의 가구들은 22년 전에 비치되어 있었던 서가를 그대로 복원하여 설치하였다.

• 체코 희곡뿐만 아니라 세계 희곡에 관련된 책, 배우에 관련된 책, 무대 디자인, 춤 등에 관련된 책들이 정리되어 있는 곳이다.



<음악부 전경>

• 특히 음악과 연극파트는 전자화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클래식한 분위기를 그대로 연출하여 카드목록을 사용하고 있다.

○ INFORMACNI STREDISKO -PRAGENSIA

• 전체적인 프라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 프라하에 대한 역사, 문화 교통 등의 잡지를 모아둔 곳으로 프라하 정보센터역할을 한다.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직원을 통해 즉시 응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장자료가 잡지들이지만 역사적으로 오래된 자료이기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들어놓은 컴퓨터도 설치되어 있다.

○ INFORMACNI STREDISKO -INTERNET

· 인터넷 자료실은 예약제로 이용 하고 있다. 예약은 하루 1시간씩 일주일간 이용할 수 있도록 받고 있다. 이용요금은 무료이지만 대출한 자료에 대해 연체료가 쌓여있는 이용자는 이용할 수 없다.

· 전체 좌석 중 1-2좌석 정도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예약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비워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신문에 관련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놓은 컴퓨터는 기사명이나 인물명만 검색하면 그에 관한 자료를 바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이동도서

이동도서는 1939년과 1949년에 시작하였다. 지역에 가까이 도서관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이용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동도서관은 프라하 시립도서관의 모든 지역의 이용자들에게 영구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3. 도서관 특색사업

가. 사서들의 주간

올해 10년째 하고 있는 이 행사는 체코에 있는 모든 사서들이 도시를 돌며 일년 중 일주일 동안 도서관 서비스 등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 주간에는 300여명의 사서들이 참석하고 있다.

나. 인터넷 주간

매년 3월을 인터넷 주간으로 정해 모든 도서관에서 인터넷을 무료로 교육을 시킨다.

다. 각 기관과 협력관계 유지

- 국제연극도서관부 협의회 : 연극에 관한 자료를 도움 받는다.
- 세계도서관 음악부 : 세계도서관음악 자료를 도움 받는다.
- 문화원과의 협력 : 영어책 구입에 도움을 받는다.

라. 방학기간 중 대여기간을 2배로 연장해준다.

4. 도서관 장·단기 계획

가. 청소년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책을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에 있으며, 어린이의 도서관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멀티미디어를 이용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

나. 영화나 공연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문화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지하출사용률이 50%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활용방안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예컨대, 출산휴가가 3년인 이곳 여성들의 재교육을 위해 출산 후 사회적응을 위해 이력서 쓰는 방법, 면접 시 인터뷰 방법 등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5. 방문 후기

가. 프라하 시립도서관 앞 광장을 일반시민들이 "도서관의 광장"이라 부른다. 이는 광장을 중심으로 옆 건물에 국립도서관과 기술도서관이 있기 때문이란다.

나. 우리나라 보통의 공공도서관은 각층별로 자료실이 구분되어 있는 것에 비해 프라하 시립도서관은 각 실을 한 공간으로 오픈시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체 시설의 1/2에 자동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다는 점은 향후 우리나라 도서관 재정비시 도입해도 좋을 듯 하다.

다. 일반 자료실에 책 안내코너를 별도 설치하여 steady-seller 또는 best-seller를 비치, 자료선택이 어려운 이용자에게 자료 접근을 매우 쉽게 하고 있음이 인상적이었다.

라. 프라하 시립도서관은 도서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의 종합정보센터로서의 문화강좌 및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의 공간으로서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정보센터부를 설치하여 프라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즉시 제공하고 있는 것은 지역 정보센터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